

한류 NOW

제3차 한류NOW 정기세미나

한류의 지금을 보다

일시 2013년 12월 10일(화) 14:00~18:00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3호

주최



후원



협력



*이 보고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재생종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CONTENTS

03 행사개요

1. 개최 목적
2. 포럼 개요
3. 세부 진행 순서

05 세션 I 한류 지역 집중 탐구

- 07 영국의 경제 · 산업 동향 및 한류현황
김준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연구원)
- 19 동남아에서의 한 · 중 · 일의 문화선호도 비교 연구
한충민 (한양대학교 교수)
- 35 중동 언론의 한류보도 분석 연구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47 세션 II 한류 장르 집중 탐구

- 49 K-뮤지컬, 또 다른 한류콘텐츠 초의 약진
박민선 (CJ E&M 공연사업부문 글로벌사업팀장)
- 57 미술훈류-한국 미술의 해외 진출 상황과 과제
김달진 (김달진미술연구소장)
- 113 K-Pop 아이돌 가수의 아티스트화 시대의 도래
이슬림 (S+ Project 연구소 대표, 前 SM아카데미원장)
- 125 한국영화 리메이크와 영화 한류
박희성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조사팀장)

행사개요

1. 개최 목적

‘2013 한류 나우 정기세미나’는 해당 분기에 발생한 국내·외 한류 동향에 관한 정확한 정보 및 심층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정책 수립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포럼 개요

일시·장소

- 일시 2013년 12월 10일(화) 14:00~20:00
-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북) 203호

주최 및 후원

- 주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협력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행사개요

3. 세부 진행 순서

13:30~14:00 (30') 등록

14:00~14:20 (20') 환영사
이팔성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장)

세션 I 한류 지역 집중 탐구

14:20~14:50 (30') 영국의 경제 · 산업 동향 및 한류현황
김준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연구원)

14:50~15:20 (30') 동남아에서의 한 · 중 · 일의 문화선호도 비교 연구
한충민 (한양대학교 교수)

15:20~15:50 (30') 중동 언론의 한류보도 분석 연구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세션 II 한류 장르 집중 탐구

15:50~16:20 (30') K-뮤지컬, 또 다른 한류콘텐츠의 약진
박민선 (CJ E&M 공연사업부문 글로벌사업팀장)

16:20~16:50 (30') 미술한류-한국 미술의 해외 진출 상황과 과제
김달진 (김달진미술연구소장)

16:50~17:20 (30') K-Pop 아이돌 가수의 아티스트화 시대의 도래
이슬림 (S+ Project 연구소 대표, 前 SM아카데미원장)

17:20~17:50 (30') 한국영화 리메이크와 영화 한류
박희성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조사팀장)

17:50~18:30 (40') 종합토론
각 세션 발제자 외, 강헌 (음악평론가)

18:30~20:00 폐회사 (만찬)
사회자: 한창완 (세종대학교 교수)

세션 I



한류 지역 집중 탐구

세션 I 한류 지역 집중 탐구

영국의 경제 · 산업 동향 및 한류현황

김준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연구원

영국의 경제·산업 동향 및 한류현황

김준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3.12.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Contents

- **영국경제 및 산업동향**
 - 경제동향
 - 산업동향:
 - 산업구조
 - 문화산업

- **영국 내 한류동향 및 시사점**
 - 영국 내 한류동향:
 - 한국 영화
 - 한국 대중음악(K-Pop)
 - 한국 문화 관련 전시, 행사
 - 시사점

2013.12.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1

영국경제 및 산업동향

2013.12.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2

경제 동향

영국의 인구동향

(단위: %)

	인구(명)	인구증가율(%)	65세 인구비중(%)	출산율(%)	중위연령(세)
수치	63,887,988	0.62	17.2	1.96	39.7
기준시점	2013년 1월	2012년	2013년 1월	2011년	2012년

주: 각 항목별 최신자료임(2013년 11월 기준).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EU 주요국의 실질GDP성장률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1/4	2/4	3/4	연간		
EU	1.7	-0.4	-0.1	0.3	0.2	0.0	1.4	1.9
유로존	1.6	-0.7	-0.2	0.3	0.1	-0.4	1.1	1.7
독일	3.3	0.7	0.0	0.7	0.3	0.5	1.7	1.9
프랑스	2.0	0.0	-0.1	0.5	-0.1	0.2	0.9	1.7
이탈리아	0.5	-2.5	-0.6	-0.3	-0.1	-1.8	0.7	1.2
스페인	0.1	-1.6	-0.4	-0.1	0.1	-1.3	0.5	1.7
영국	1.1	0.1	0.4	0.7	0.8	1.3	2.2	2.4

주: 전분기 및 전년대비 자료이며, 2013년 3/4분기까지의 성장률 자료는 실적치, 이후 자료는 전망치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2013.12.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3

경제동향(계속)

EU 주요국 최근 3개월 동안의 월간 실업률 추이(2013년 7-9월)

(단위: %)

	EU	유로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2013년 7월	11.0	12.1	5.3	11.0	7.6	12.1	26.5
2013년 8월	11.0	12.2	5.3	11.0	7.5	12.4	26.6
2013년 9월	11.0	12.2	5.2	11.1	-	12.5	26.6

주: 계절조정 자료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EU 주요국 최근 3개월 동안의 월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2013년 8-10월)

(단위: %)

	EU	유로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2013년 8월	1.5	1.3	1.6	1.0	2.7	1.2	1.6
2013년 9월	1.3	1.1	1.6	1.0	2.7	0.9	0.5
2013년 10월	0.9	0.7	1.2	0.7	2.2	0.8	0.0

주: 전년동기대비(계절조정) 자료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2013.12.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4

산업동향: 산업구조

영국의 산업구조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농림수산업	0.6	0.6	0.6	0.6	0.6
광산 및 채굴업	2.2	2.1	1.9	1.9	1.8
제조업	11.9	11.6	11.3	10.8	11.0
건설업	6.8	6.7	6.6	6.0	6.4
서비스업	75.9	76.6	77.0	78.2	77.7
- 부동산, 금융 및 보험	17.3	17.4	17.8	18.6	17.9
- 도소매, 각종 차량수리	11.6	11.8	11.5	11.4	11.3
- 정보통신	6.8	7.1	7.2	7.3	7.7
- 전문직, 과학기술	7.0	7.5	7.6	7.3	7.3
- 교육, 예술, 연예, 여가	7.2	7.0	7.0	7.2	7.1

주: 전체 산업의 총부가가치 중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2013.12.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5

한류의 지금을 보다

산업동향: 문화산업

• 영국의 문화산업: 창조산업

- 창조산업에 포함되는 세부 산업
(UK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 | | |
|------------------------------|--|
| ① 광고(Advertising), | ⑧ 양방향 레저 소프트웨어
(Interactive Leisure Software), |
| ② 건축(Architecture), | ⑨ 음악(Music), |
| ③ 예술 및 고품(Art & Antiques), | ⑩ 공연예술(The Performing Arts), |
| ④ 공예(Crafts), | ⑪ 출판(Publishing), |
| ⑤ 디자인(Design), | ⑫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서비스
(Software & Computer Services), |
| ⑥ 디자이너 패션(Designer Fashion), | ⑬ TV 및 라디오(Television & Radio) |
| ⑦ 영화 및 비디오(Film & Video), | |

2013.12.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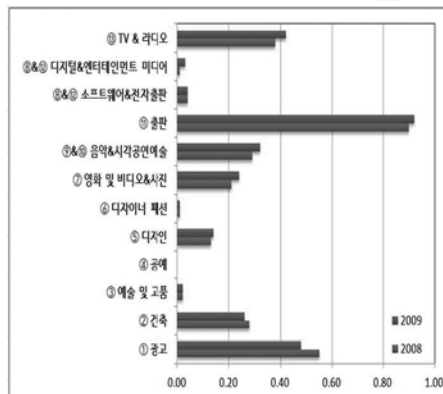
6

산업동향: 문화산업(계속)

창조산업군 세부 산업별 부가가치창출비중

(단위: %)

세부산업구분	2008	2009
① 광고	0.55	0.48
② 건축	0.28	0.26
③ 예술 및 고품	0.02	0.02
④ 공예	0.00	0.00
⑤ 디자인	0.13	0.14
⑥ 디자이너 패션	0.01	0.01
⑦ 영화 및 비디오&사진	0.21	0.24
⑨&⑩ 음악&시각공연예술	0.29	0.32
⑪ 출판	0.90	0.92
⑧&⑫ 소프트웨어 &전자출판	0.04	0.04
⑧&⑬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0.01	0.03
⑬ TV & 라디오	0.38	0.42



주: 전체 산업의 총부가가치 중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2011).

2013.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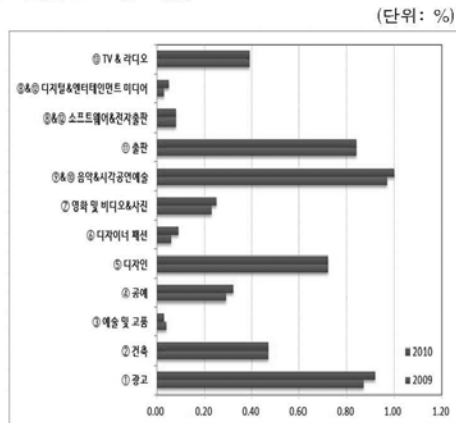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7

산업동향: 문화산업(계속)

창조산업군 세부 산업별 고용 비중

세부산업구분	2009	2010
① 광고	0.87	0.92
② 건축	0.47	0.47
③ 예술 및 고품	0.04	0.03
④ 공예	0.29	0.32
⑤ 디자인	0.72	0.72
⑥ 디자이너 패션	0.06	0.09
⑦ 영화 및 비디오&사진	0.23	0.25
⑨&⑩ 음악&시각공연예술	0.97	1.00
⑪ 출판	0.84	0.84
⑧&⑫ 소프트웨어 & 전자출판	0.08	0.08
⑧&⑫ 디지털 & 인터넷엔터테인먼트 미디어	0.03	0.05
⑬ TV & 라디오	0.39	0.39



주: 전체 고용 중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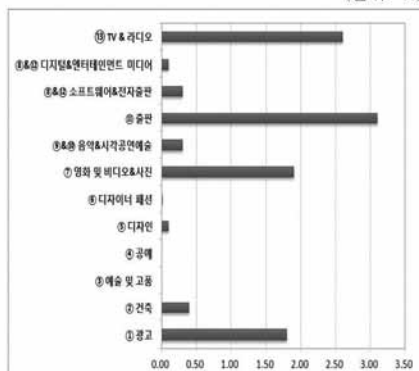
2013.12.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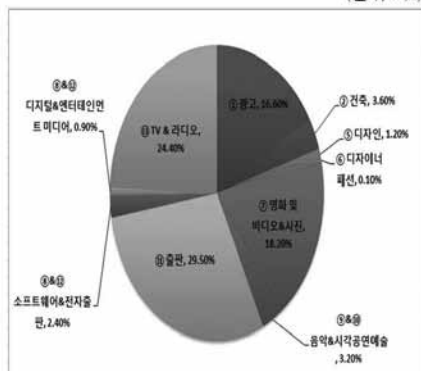
산업동향: 문화산업(계속)

2009년 전체 수출 중 창조산업군 세부 산업별 수출 비중



주: 전체 수출 중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2011).

2009년 창조산업군 수출 중 세부 산업별 수출 비중



주: 전체 창조산업수출 중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2011).

2013.12.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9

영국 내 한류동향 및 시사점

2013.12.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10

영국 내 한류동향: 한국 영화

- 2000년대 중반부터 영국 학계를 중심으로 한국 영화를 연구

The screenshot shows a webpage from the University of Cambridge, Faculty of Asian and Middle Eastern Studies,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The page is titled "Studying Korean Film at Cambridge". It contains text about the department's focus on Korean film studies, mentioning the introduction of the film "Introduction to the Film Traditions of East Asia" and the role of the Korean Film Council (KOFIC) in supporting research. There are also two photographs: one of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another of Dr. John Sorenson with actor Lee Byung-hun at the 2008 London Korean Film Festival.

2013.12.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11

영국 내 한류동향: 한국 영화(계속)

- 런던한국영화제(London Korean Film Festival)의 경우 최근 1~2년 사이 행사 참여 관객이 증가하는 등 한국 상업영화에 대한 영국 현지의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는 양상
- 다만, 영화배급 등에 있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에는 한계가 존재



2013.12.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12

영국 내 한류동향: 한국 대중음악(K-Pop)

- K-Pop은 현재까지 영국 내 한류확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분야
- 다만, 영국에서 K-Pop은 한국 아이돌 그룹에 대한 관심으로 제한된 측면

UNITEDKPOP 웹사이트 메인화면



주영한국문화원 운영 K-Pop Academy 관련 안내화면



2013.12.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13

영국 내 한류동향: 한국 문화 관련 전시, 행사

- 영국 내에서 ‘한국 문화’ 또는 ‘한류’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한국 영화와 한국의 대중음악(K-Pop)에 편중된 측면이 있는 가운데, 다른 문화, 예술 분야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도 시작

주영한국문화원 웹사이트 메인화면



런던 코리아브랜드&한류상품박람회 2013



2013.12.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14

영국 내 한류동향: 시사점

- 한국적인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매개체 - 전통공연, 전시, 음식, 패션 등 -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전시회,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한국 문화가 일반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전략이 요구
 - 주한영국문화원이 기획하고 있는 각종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 K-Pop의 경우 온라인을 활용하여 인지도를 확산시키되, 영국 현지 기획사와의 제휴를 통한 프로모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의 전략도 점진적으로 병행
 - K-Pop의 영국 내 진출은 민간 주도의 상업화 전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2013.12.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15



세션 I 한류 지역 집중 탐구

동남아에서의 한 · 중 · 일의 문화선호도 비교 연구

한충민

한양대학교 교수

동남아에서의 한·중·일의 문화 선호도 비교 연구

2013.12

■ 발표자: 한충민 (韓充敏, 한양대)
cmhlab@hanyang.ac.kr

동남아에서의 한·중·일의 문화선호도 비교연구

연구 과제

- ① 동남아 지역에서의 일본 및 중국 문화에 대비한
한류의 위상 평가
- ② 동남아에서의 한·중·일 3국의 문화를 선호하는
계층의 비교 분석
- ③ 문화선호도와 국가이미지와의 관계 분석

한류의 지금을 보다

동남아에서의 한·중·일의 문화선호도 비교연구

조사 표본

- 조사 대상 국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5개국
- 표적 표본: 여론선도층 및 학생 (Kotra의 표본 패널 활용)
- 표본 규모: 국가별 200명 / 전체 1,000명
-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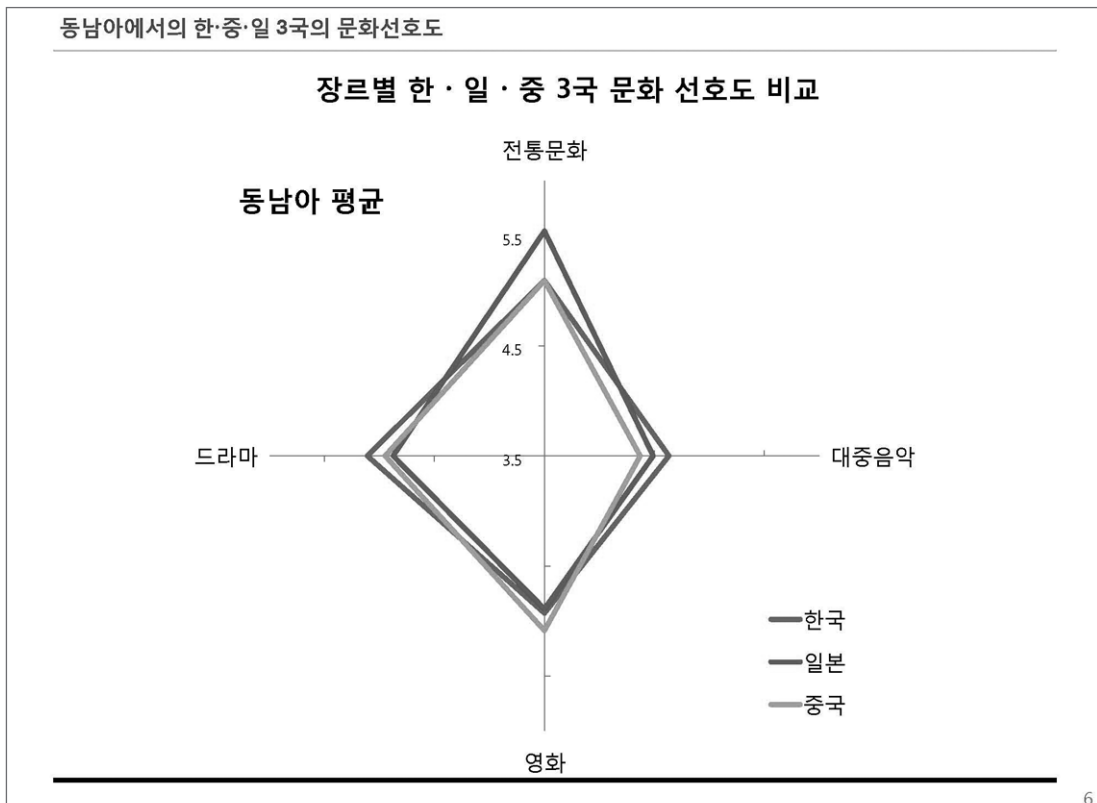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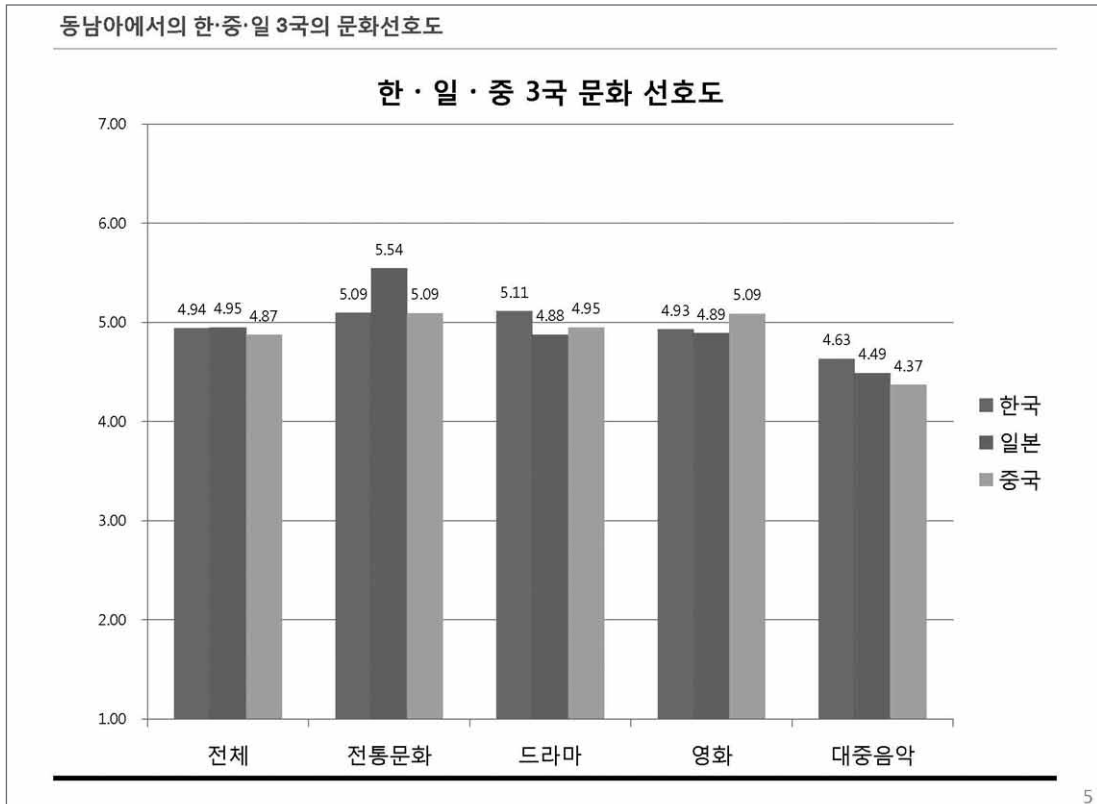
	남성비율	20-29세	30-39세	40-49세	학생	정규직	자영업
말레이시아	51.5	38.5	34.0	17.0	13.0	60.5	16.0
베트남	55.5	42.0	37.5	13.5	15.5	58.5	10.0
싱가포르	55.5	26.0	36.0	20.0	8.5	70.0	7.5
인도네시아	49.0	31.5	36.0	25.0	8.5	41.0	26.5
태국	51.0	32.0	38.0	19.5	16.0	52.0	22.5
전체	52.5	34.0	36.3	19.0	11.9	56.4	16.5
교차분석	$\chi^2(4)=2.7$	$\chi^2(16)=43.9^*$			$\chi^2(24)=116.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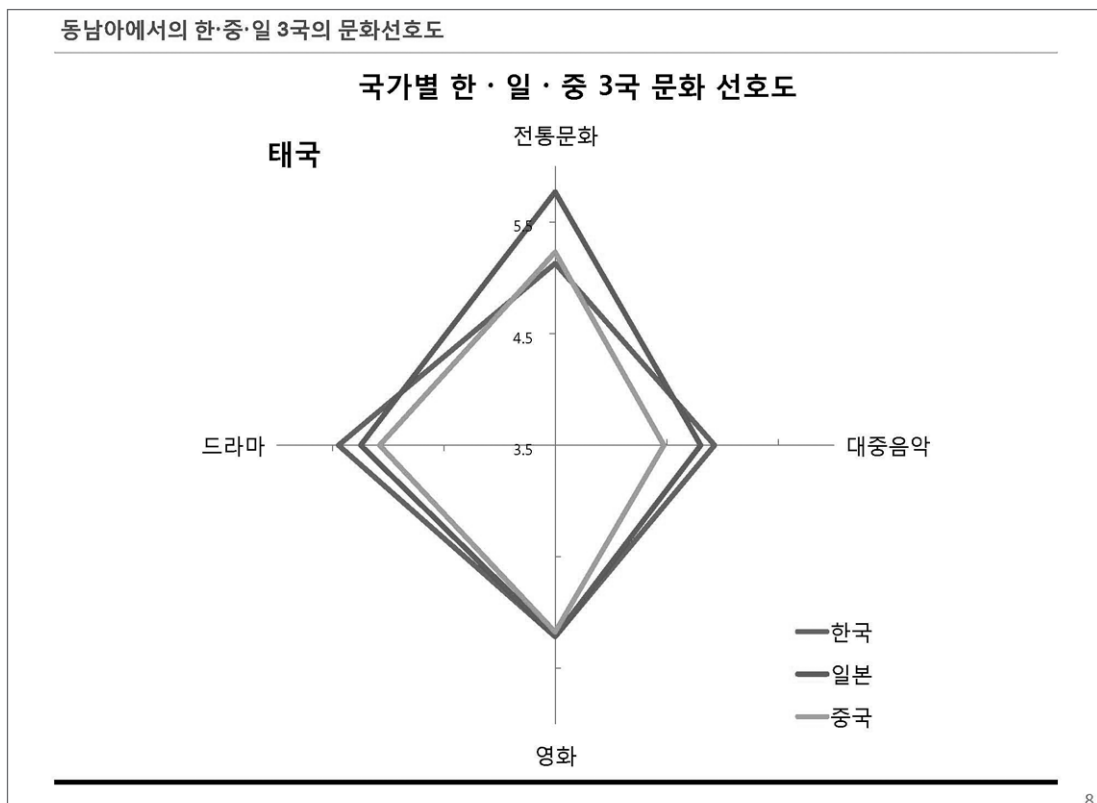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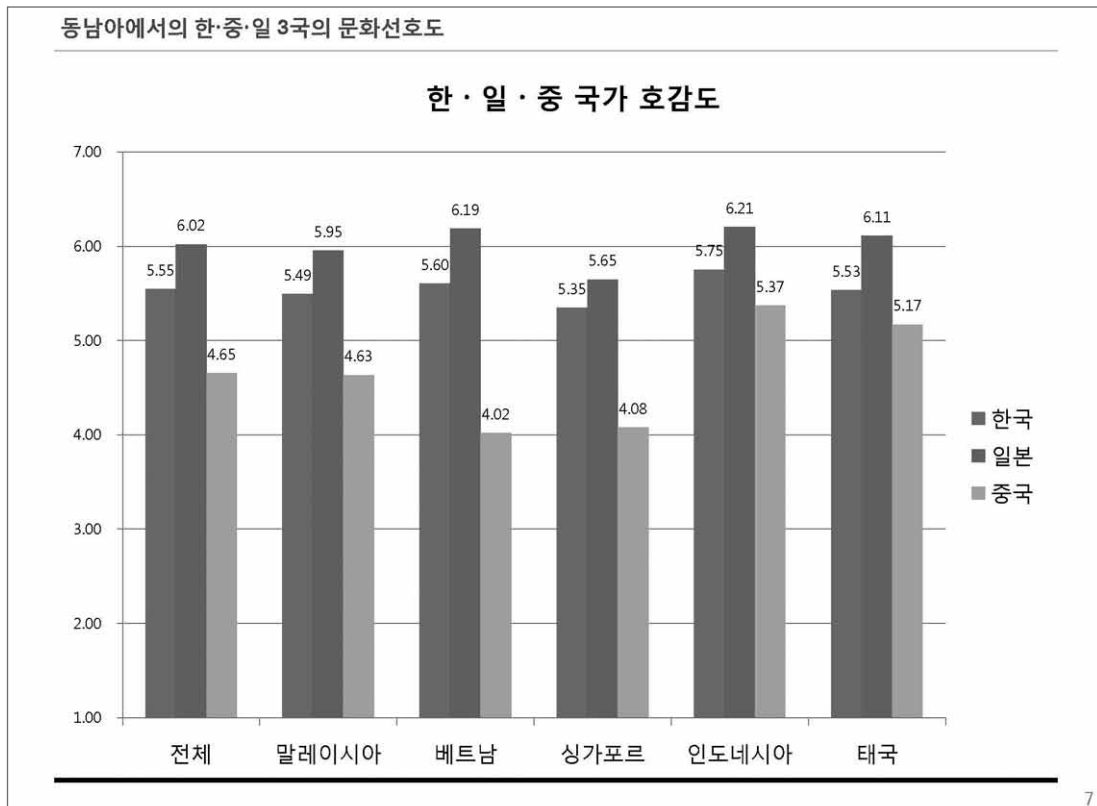
1 동남아에서의 한·중·일 3국의 문화선호도

동학서점
 동남아에서의 한·중·일 3국의 문화선호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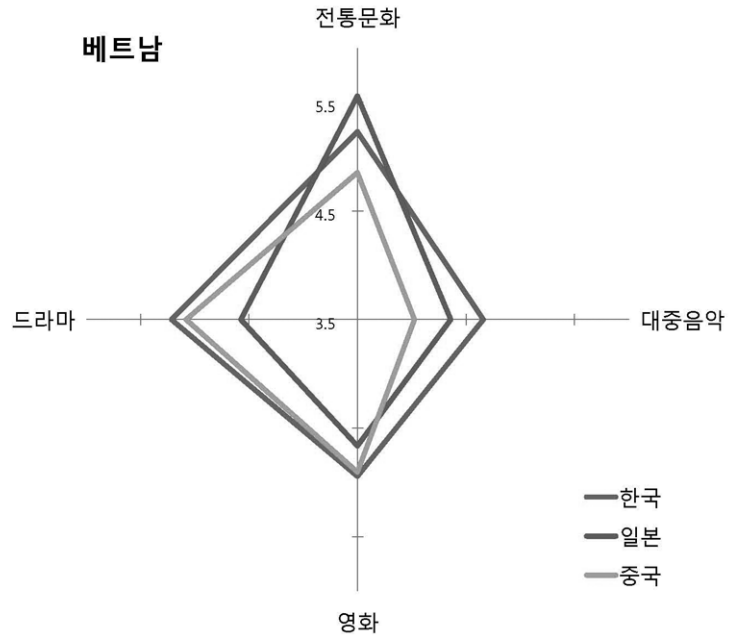
제3차 한류NOW 정기세미나
한류의 지금을 보다



동남아에서의 한·중·일 3국의 문화선호도

국가별 한·일·중 3국 문화 선호도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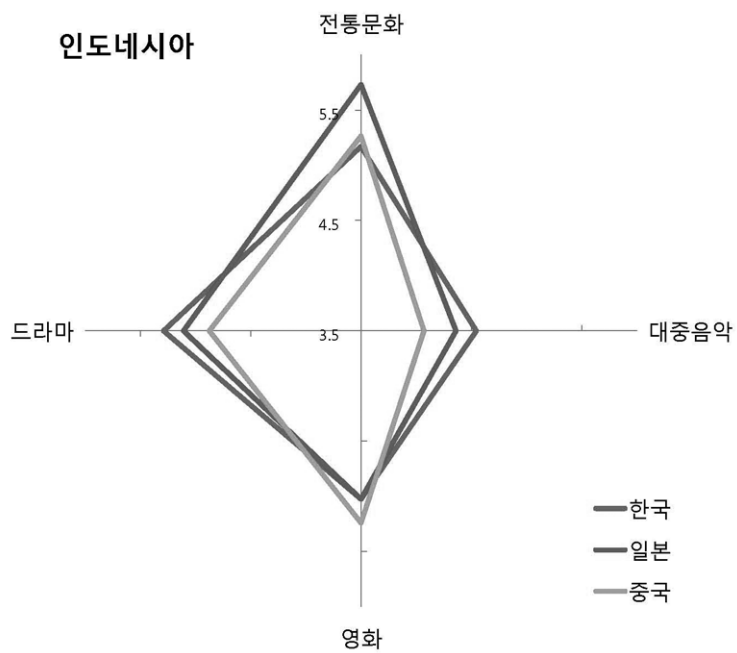


9

동남아에서의 한·중·일 3국의 문화선호도

국가별 한·일·중 3국 문화 선호도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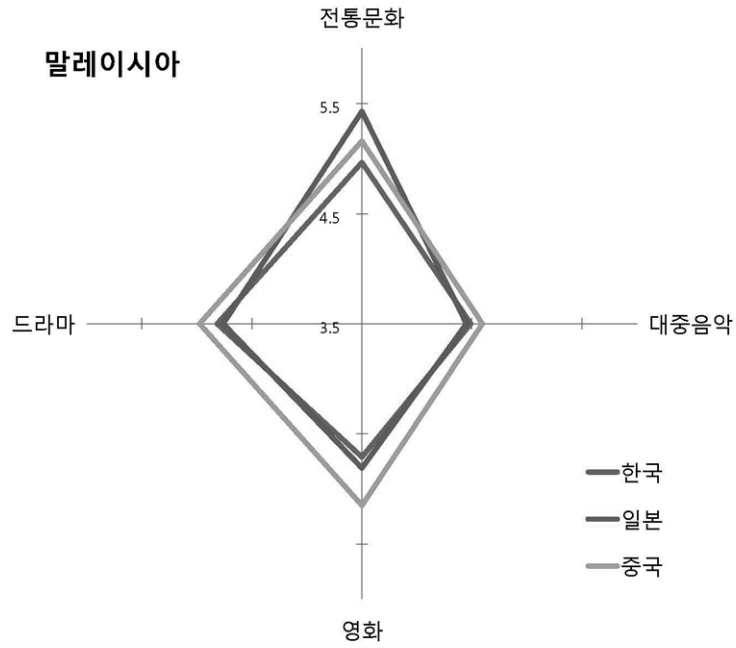


10

제3차 한류NOW 정기세미나
한류의 지금을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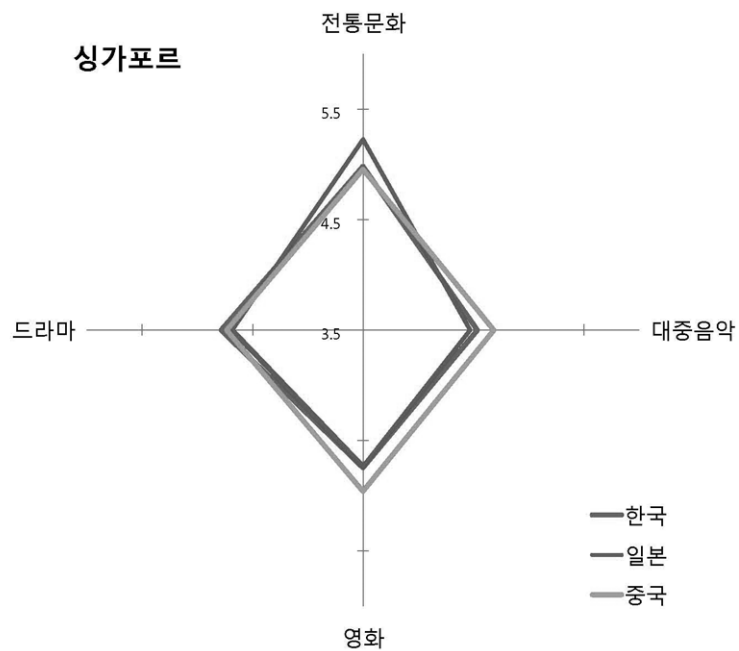
동남아에서의 한·중·일 3국의 문화선호도

국가별 한·일·중 3국 문화 선호도



동남아에서의 한·중·일 3국의 문화선호도

국가별 한·일·중 3국 문화 선호도



동남아에서의 한·중·일 3국의 문화선호도

국가별 한·일·중 3국 문화 선호도 - 종합평가

- 한·중·일 3국의 장르별 선호도
 - ❖ 한국은 드라마와 대중음악, 일본은 전통 문화, 그리고 중국은 영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 국가별 상대적 선호도 (일본과 중국 대비):
 - ❖ 인도네시아, 베트남 > 태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 상대적으로 평균 연령이 낮고,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에서 선호되는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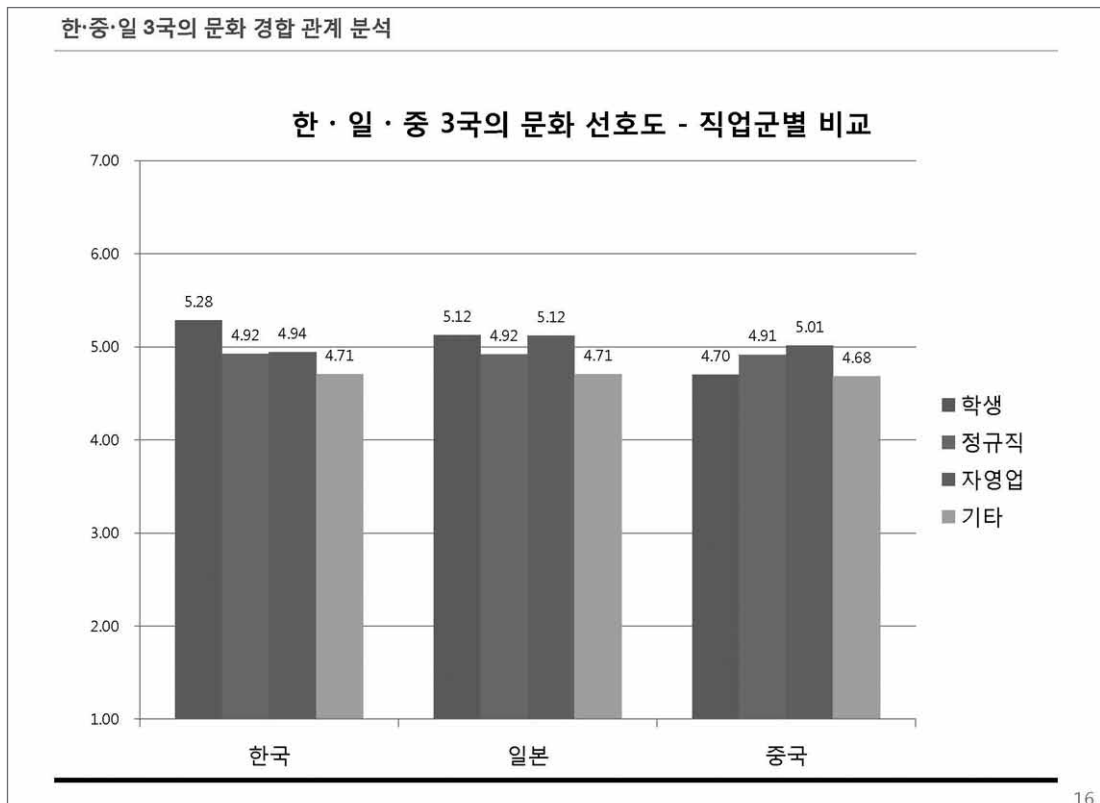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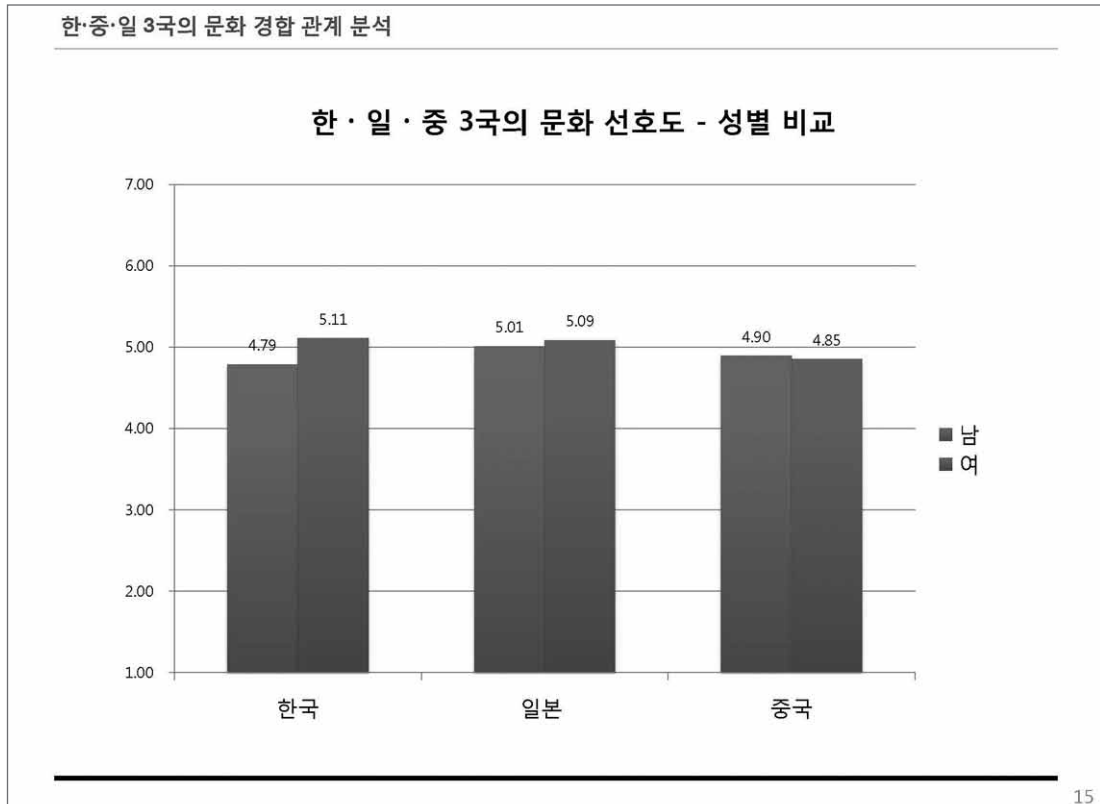
13

2 한·중·일 3국의 문화 경합 관계 분석

동학 외학 화제 동경
 인우 특이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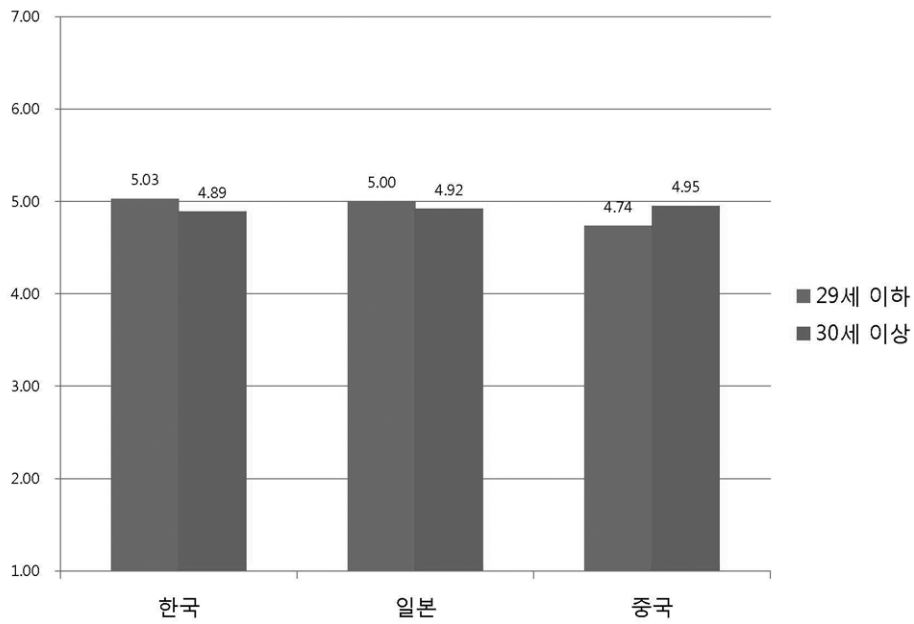
14

제3차 한류NOW 정기세미나
한류의 지금을 보다



한·중·일 3국의 문화 경합 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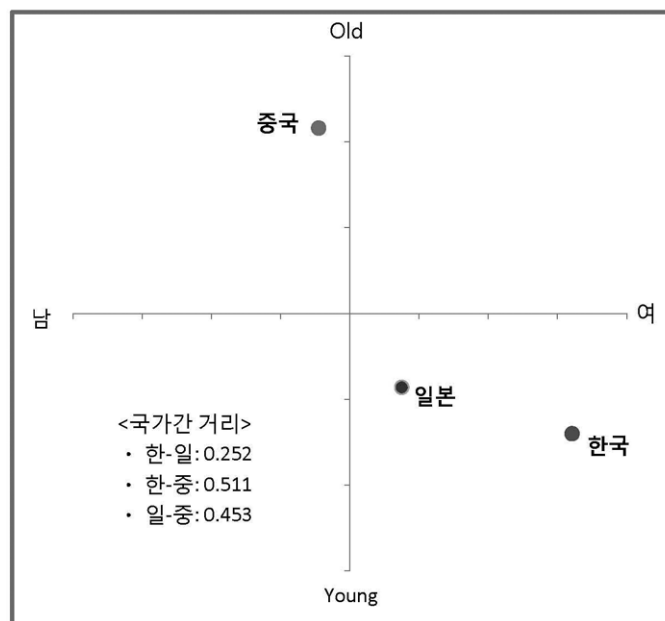
한·일·중 3국의 문화 선호도 - 연령대별 비교



17

한·중·일 3국의 문화 경합 관계 분석

한·일·중 3국의 문화 포지셔닝 맵 - 인구통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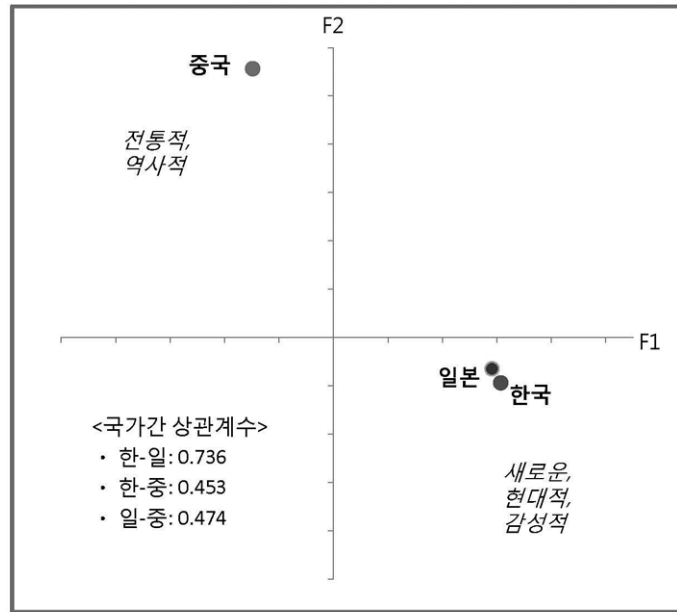


18

제3차 한류NOW 정기세미나
한류의 지금을 보다

한·중·일 3국의 문화 경합 관계 분석

한·일·중 3국의 문화 포지셔닝 맵 - 선호도



한·중·일 3국의 문화 경합 관계 분석

한·중·일 3국의 문화 선호 계층의 세계주의 성향

문화	표준화된 회귀 계수 - 세계주의 성향과 문화선호도			
	전통문화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한국	.136	.106	.083	.122
일본	.158	.163	.156	.197
중국	.155	.180	.147	.111

주: 상기 계수는 세계주의 성향이 문화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 (통계변수: 국가호감도, 자민족주의)
 모든 수치는 5% 유의.
 세계주의 성향이 높은 계층은 일반적으로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높으며, 외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 높음.

3 문화선호도와 국가이미지와의 관계

국가이미지하의 문화

21

문화선호도와 국가이미지와의 관계

문화장르와 국가 호감도의 관계 - 회귀분석

국가 호감도	표준화된 회귀 계수				
	전통문화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R ²
한국	.481*	.062**	.115*	.147*	.474
일본	.559*	.014	.147*	-.004	.421
중국	.509*	.015	.177*	.014	.421

주: * 5% 유의, ** 10% 유의.

22

제3차 한류NOW 정기세미나
한류의 지금을 보다

문화선호도와 국가이미지와의 관계

한류와 국가이미지의 관계 - 계층적 분석

계층	표준화된 회귀 계수				R ²
	전통문화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여성	.427*	.143*	.061	.200*	.502
남성	.514*	.022	.156*	.097*	.461
학생	.419*	.154	.023	.240*	.479
비학생	.497*	.047	.125*	.139*	.481
29세 이하	.464*	.077	.109**	.203*	.533
30세 이상	.492*	.063	.105*	.111*	.438

주: * 5% 유의, ** 10% 유의.

4 결론 및 시사점

한류의 지금을 보다

결론 및 시사점	요약
<p><한·중·일 3국의 문화에 대한 선호도와 국가 이미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 7점 만점에 4.941으로 비교적으로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과 유사한 수준, 중국 보다는 높음. ● 한·중·일 3국의 장르별 선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드라마와 대중음악, 일본은 전통 문화, 그리고 중국은 영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한·중·일 3국의 국가 호감도: 일본 (6.020) > 한국 (5.546) > 중국 (4.654). ●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 국가별 상대적 선호도 (일본과 중국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베트남 > 태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p><한·중·일 3국의 문화 경합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3국의 문화 선호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여성과 젊은 계층 (특히 학생), 세계주의 성향이 다소 낮음 - 중국: 남성과 30세 이상의 계층 - 일본: 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문화 선호 계층과 유사한 특성. ● 한국과 일본의 문화 선호 계층은 상당 중복 - 경합 관계. <p><문화선호도와 국가이미지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장르와 국가 호감도의 관계 - 전통 문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 ● 한류를 주도하는 대중음악과 드라마가 한국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전통문화에 비해 크지 않음 ● 한류가 젊은 층, 여성 그리고 학생 등의 계층에 제한되고 있어 전체 한국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와 달리 크지 않음. 	

25

결론 및 시사점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및 국가이미지 정책 -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주도 계층 (여성, 젊은 계층)에 부합하는 타겟팅 전략 필요 ● 한류 마케팅 - 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주도 계층 (여성, 젊은 계층)에 부합하는 제품 및 커뮤니케이션 필요 ● 한류 및 국가이미지 정책 - 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르의 확대: 드라마, 대중음악 → 전통문화 - 고객 기반 확대: 여성, 젊은 계층 → 폭넓은 계층으로 확대 - 일본 대비 경쟁력 제고 ● 향후 연구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의 매력도 결정 요인 - 일본 문화 대비 한류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 한류와 국가이미지의 관계에 관한 종합적 분석 - 한류 확대 방안 연구 - 장르 및 고객 계층 확대 	

26

세션 I 한류 지역 집중 탐구

중동 언론의 한류보도 분석 연구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중동 언론의
한류보도 분석 연구**

제3차 한류 나우 정기세미나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서 정 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교수

중동과 문화교류의 필요성



- 57개국 14억의 이슬람권
- 문화교류의 초기 단계의 진출 가능성 높은 지역
- 오해와 편견으로 문화적 갈등 발생 높은 문명권
- 막대한 오일자본으로 무한한 경제협력 가능성 가진 블루오션
- 인구 30세 이하 비중 60%의 역동적인 문화권 혹은 시장
- 돈 펄펄 쓰는 즐부?
- 문화적 섬세함을 갖춰가고 정체성을 정립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중동과 문화교류 현황



- 60년대, 북한과의 경쟁 외교
- 70년대 이후 오일쇼크 이후 경제중심주의적 교류 치중
-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교류가 한류의 원조
- 90년대 이후 문화교류 시작
- 한국 드라마, 문학 작품 현지방영, 번역 사업 등
- 21세기 쌍방향 문화교류 본격화: 사우디의 주한 문화원 설치 등의 움직임
- 그러나 양적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부진

연구 목적과 내용



- 중동에서 한류가 유행하는 주요 7개국 언론 보도에 나타난 한류에 대한 기사의 내용을 분석; 중동 전체와 개별 국가에서 한류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파악
- 둘째, 중동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류에 관해 인터뷰 조사 실시: 중동에서의 한류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 셋째, 기사 내용분석과 기자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중동 지역에서의 한류 현황, 유행 원인, 한류 효과 및 문제점, 개선점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 넷째, 연구 결과와 중동 문화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중동에서의 바람직한 한류의 발전방안과 한국-중동간 문화 교류 확대 방안 제시

언론보도에 나타난 한류의 위상



- 2010-2013.08 기간 642개 기사: 양적으로 미미
- 1기(2000-2010)에 비해 2기(2011년) 이후 기사 크게 증가: 분석기사의 71.4%;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한류
- 내용 프레임: 문화적 흥미 46.6%, 교류 33.6%, 성공 6.9%, 정책 6.7%, 경제 4.5%, 비판 1.7%
- 한류 콘텐츠, 한류 스타, 행사 등의 흥미 내용이 최다
- 그러나 한류의 성공요인이나 효과, 양측의 정책, 경제적 측면 관련 보도 적어
- 문화적 접근이 주류: 깊은 관심이 없으며 동시에 경계심도 없음
- 대부분 단순 사실을 중립적인 보도태도로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 심층분석화제나 기획기사, 특정인물 집중 보도한 인터뷰 기사 매우 적음
- 한류가 중동 사회의 주류 층에서 즐기는 문화영역까지 진출하지 못함

언론보도에 나타난 한류의 인기실태



- 부정적인 평가는 적고,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보도
- 중립적 68.9%, 긍정적 29.0%, 부정적 2.2%
- 1기에 비해 2기에는 중립적인 보도태도의 비중이 줄고, 긍정적인 보도태도의 비중 증가
- 일화중심적 프레임 기사에서는 중립적인 보도태도, 심층 분석한 주제중심적 프레임 기사에서는 긍정적인 보도태도가 다수
- 장르별로는 K팝을 비롯한 음악이 가장 인기; 이어 영화, 드라마, 스포츠 순
- 1기: 드라마, 영화; 2기: K팝
- 최근 관광 기사 증가로 '한류관광효과' 서서히 등장

한류의 성공 이유



- 한국 정부의 문화개방정책
- 한국 문화산업의 치열한 노력
- 한국 문화콘텐츠의 우수성
- 한국과 중동 국가간의 문화적 유사성
- 정보통신의 발달
- 중동 문화콘텐츠의 취약성
- 한국과 중동 문화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이라는 모순적인 반응

한류가 중동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



- 한국의 국가 이미지 크게 개선
- 경제발전에 이어 문화강국 이미지
- 한국어와 음식 그리고 패션에 대한 관심
- 한국과 중동 간의 문화적 거리감 축소
- 한류가 중동 내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 고조에도 기여
-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 강화
- 한국 방문하려는 사람들의 증가
- “한류가 중동 분쟁해결에도 긍정적인 역할 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나타난 한류의 문제점



- 비판적인 기사 적어,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많지 않음
- K팝 스타들의 기계적인 양산 시스템과 불공정한 계약 논란
- 한국 대중 스타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
- 한류의 선정성
- 한류의 지나친 서구화
- 중동문화와 이질적인 음식문화
- 지나친 상업화 등

기자 인터뷰 - 중동 내 한류 유행 정도

국가	전반적 유행	일부 유행	소계
사우디아라비아	2	9	11
아랍에미리트	6	6	12
이집트	5	2	7
이라크		6	6
이란	4	1	5
터키	5	3	8
이스라엘	1	2	3
합계	23	29	52

한류의 지금을 보다

기자 인터뷰-중동 내 한류 선호 장르

국가	드라마	K팝	영화	스포츠	기타	소계
사우디아라비아	7	2			2	11
아랍에미리트	5	7				12
이집트	6	4				10
이라크	6					6
이란	5					5
터키	5	7				12
이스라엘	3	1				4
합계	37	21			2	60

기자 인터뷰-중동 내 한류 선호 이유 혹은 배경

국가	친숙성	콘텐츠의 독창성	차별성, 새로움	모름	소계
사우디아라비아	5	2		4	11
아랍에미리트	2	5	5		12
이집트	2	3	1	1	7
이라크	1		4	1	6
이란	3	1	1		5
터키	5	2	1		8
이스라엘		1	2		3
합계	18	14	14	6	52

기자 인터뷰-한류의 문제점은

국가	선정성	서구적	문화적 차이	모름	기타	소계
사우디아라비아	2	1	1			4
아랍에미리트	6		1		1	8
이집트	1	1			1	3
이라크	2	1				3
이란	2	2				4
터키	1	1			3	5
이스라엘					1	1
합계	14	6	2		6	28

기자 인터뷰-한류 및 문화교류 확대방안

국가	문화원 설치 등 정부 역할	문화행사 확대	현지친화적 콘텐츠 개발	학술, 문화 등 민간 교류	소계
사우디아라비아	3	4	3	2	11
아랍에미리트	2	5	3	1	12
이집트	1	4	1	1	7
이라크	1	3	2		6
이란	1	2	1	1	5
터키	1	3	2	2	8
이스라엘		1	1	1	3
합계	9	22	13	8	52

중동 한류에 대한 종합평가



- 관세청의 한류 확산단계를 기준으로 중동의 한류는 2단계, 즉 한류 파생상품구매 단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5단계를 기준으로 중동의 한류는 인지단계
- 관세청(2011)은 UAE와 이스라엘을 1단계인 비한류 국가로 분류한 바 있으나, 현재 2단계로 파악되어 2년 만에 한류가 상당히 확산된 것으로 해석 가능

문화교류 시 중동의 특징



- 서구의 식민지 및 정치, 경제, 문화적 침탈에 대한 반감
- 이권을 위한 서방의 일방적 문화콘텐츠 공급에 익숙한 정부 및 국민
- 문화교류에 있어서 국가 및 집권세력의 영향력 상존
- 외부 문화 수용에 있어 세대 간 혹은 성향 간 괴리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현지기업의 폭리 추구 현상
- 그러나 동양적인 가치와 전통으로 한국문화에 우호적

중동과 문화교류의 고려사항



- 접근의 틀 변화 필요
- 경제적 접근의 한계점 극복: 민간 문화교류 활성화 필요
- 현지 친화적 콘텐츠 개발
- 국가중심적 정책과 사고 가진 중동의 특성 이해 → 초기에는 정부 차원의 접근도 필요: 협력 위원회 및 문화원 설치 등
- 공적개발원(ODA)의 적극 활용
- 진출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 국가 혹은 도시 별 특화된 문화 교류 추진: 경주-이스탄불 (경주-룩소르, 광주-카사블랑카)

감사합니다!

서정민 교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amirse0@hufs.ac.kr
 010-2034-1966

세션 II



한류 장르 집중 탐구

세션II 한류 장르 집중 탐구

K-뮤지컬, 또 다른 한류콘텐츠의 약진

박민선

Cj E&M 공연사업부문 글로벌사업팀장

2013 한류NOW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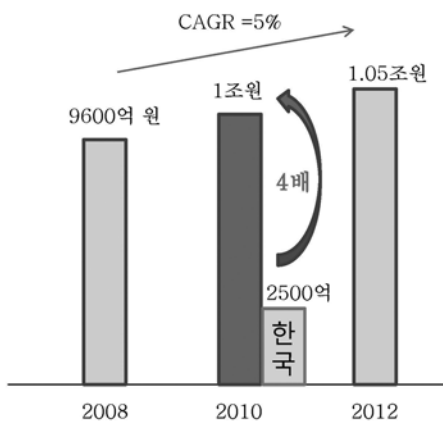
일본 내 K-MUSICAL의 현황과 발전방향

201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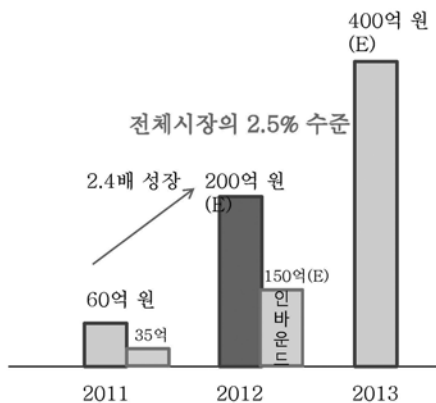
박민선

1.1 일본 공연시장 규모

일본 뮤지컬 시장 (추정)



일본내 한류 뮤지컬시장 (추정)









주) 일본 티켓사이트 PIA의 2009백서 기준 08년 뮤지컬+연극 규모는 1671억엔(한화 1300원 적용시 약2조원)이며, 2011년 속대 정기은교수의 한국뮤지컬산업 분석 자료에 의하면 10년 기준 일본 뮤지컬시장은 5000억원으로 두 자료의 중간값인 1조원 정도가 합당하다고 봄

주1) 12년 진행작품 14개 기준 산출 기준
 주2) 평균단가 8757엔, 평균좌석수 928석, 평균유료점유율 63%
 평균공연횟수 21회(주10회x2주)
 주3) 기준환율 100엔=1,400원
 주4) MD, 협찬 등 부가매출은 제외
 주5) 인바운드는 한국 공연 관람자 방한한 해외팬의 티켓구매액

한류의 지금을 보다

1.2 일본 주요 제작사 분석

시장 규모 80%를 차지하는 막강한 메이저 3개 업체가 지속 성장 하는 가운데 매니지먼트가 특화된 기획 프로덕션 업체들과 내실있는 중소제작사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대표기업	기업 분류 및 주요 특징	경쟁력	주요 작품
메이저기업	SHIKI TOHO 다카라즈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뮤지컬 사업의 중심 대형 공연기업군 SHIKI는 전용극장 증가와 더불어 연간 관객 동원수 약 320만 - 도쿄에만 다섯 개 극장, 전국 10개 극장 보유 - TAKARAZUKA는 전용 극장 외에도 닛세이/우메다/하카다자와 강력한 네트워크로 국내 주요 극장을 도는 정기공연 - TOHO가 제작하여 전용 극장 제작/시어터크리에에서 상연되는 TOHO뮤지컬은 전체 시장 10% 차지 - TOHO의 공연방식은 SHIKI와 달리 1~3개월 공연 - 레미제라블은 2009년까지 통상 2,408회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년 이상의 경험, 노하우 및 네트워크 안정적인 팬층 자체 보유 공연장 인프라 3대 메이저 시장이 MS 80% 차지함 	 
기획 프로덕션	Nelke 차니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팬클럽 선대로 모든 공연이 즉매 되는 차니즈 - 도쿄 글로브좌 소유, 그 외 아이오마/세국/신바시연무장과 강력한 네트워크 - 팬클럽 선대 통하여 모든 공연을 일반 오픈 전에 완매 - 2010년 19작품 프로듀스, 100여명 이상의 소속 배우 출연 아이돌 시스템 도입한 Nelke - 테니스의 왕자는 기수별로 아이돌 그룹화 - 팬층을 공략한 음반발매, MD판매 등 부가수익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기획력 강력한 팬층 수익창출에 집중한 효율적 비즈니스 	 
중소제작사	아블리에던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년 이상의 업력으로 고경쟁 확보 - 참신한 기획으로 100편이 넘는 라이브러리 보유 - 대중과 친숙한 정통 연기와 배우 소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기획력 탄력적인 경영 다양한 라이브러리 	 

3

1.3 일본 시장 최근 동향

'빈 뮤지컬'의 인기

- TOHO는 2010년 라인업으로 '레베카' '엘리자베스' '모차르트' 3연속 배치 (TOHO 연간 라인업 15작품 내외)
- 특히 '엘리자베스'는 일본 제작 10주년 기념하여 보통 2-3주 상연례를 깨고 전격 3개월 배치



제작사를 바꾼 '왕년의 작품' 재연

- 국내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라이센스물의 제작사가 바뀌는 일이 거의 없으나, 최근 왕년의 여러 인기작이 '새로운 제작사'에서 상연
- 2010년 <캔디스>: Parco -> TOHO
- 2010년 ~ 2011년 <폴조이> <윈터폴타운> <아가씨와 키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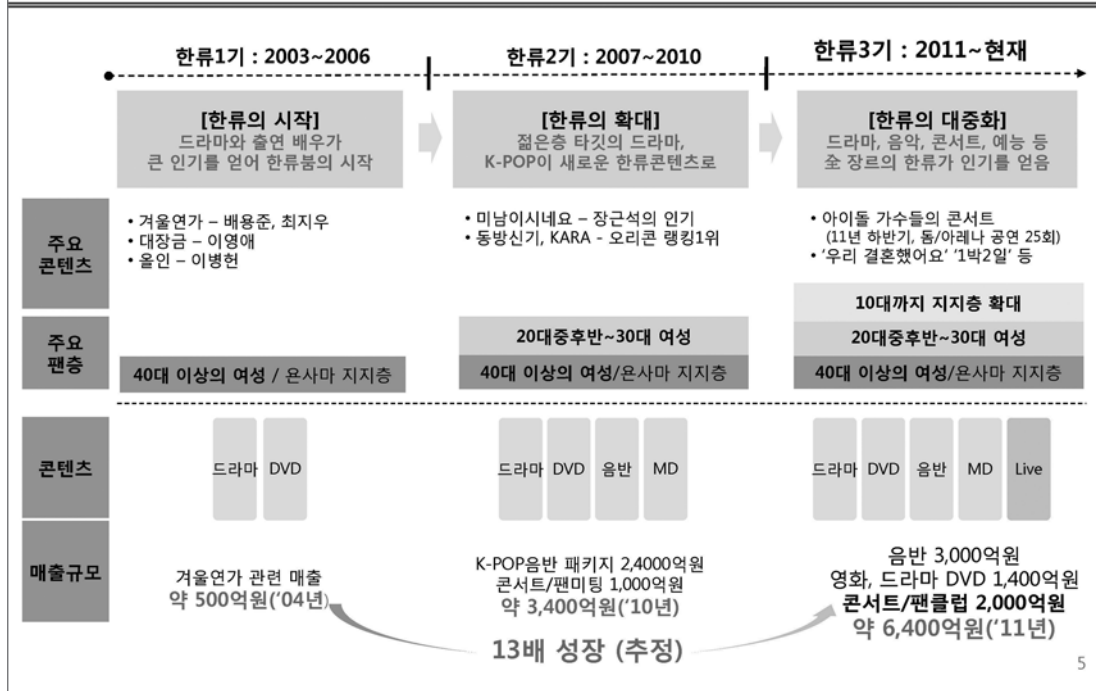
한국 뮤지컬 부상

- 한류 콘텐츠 수입 <궁> <늑대의 유혹> <미녀는 괴로워> by shochiku
- 한국 프로덕션 수입 <빨래> by 퓨어메리, <램릿> by TOHO



4

2.1 일본내 한류 성장 단계



5

2.2 일본 내 한류타겟 고객

40~50대 여성 한류 Core Fan이 메인타겟, K-POP 붐으로 태동한 20~30대 여성 신 한류 Fan이 서브타겟, 남성 30~40대가 잠재 고객임

고객 유형	선정 이유	주요 니즈	공략 방안
[Main] 한류 Core F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40~50대, 1세대 한류팬 로열티고 (한류의 일상생활화) 전 한류상품 구매력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들보다 먼저, 차별화된 한류 콘텐츠 공급 원함 지속적인 팬클럽 활동 	한류 팬클럽 중심 공연 마케팅, 노출
[1차Sub] 신 한류 F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20~30대 (K-POP 통한 확대, 2세대 한류팬) 한류 선호도 증대 / 구매력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심사 : 한류 콘서트, 음반, DVD 등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 뷰티, 건강, 여행 전반 체험형 실용적인 정보 	K-Pop스타 중심 캐스팅전략으로 관심도 제고
[2차Sub] 남성 30~4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 고객 (現, 한류 구매력 낮음) 최근 한식을 중심으로 관심도 및 호감도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SNS활용 한국 관광, 쇼핑 등에 관심 	한국 관련 관광, 음식, 쇼핑 연계 공연마케팅 (중장기적 Target)

출처) 오리콘 'K-POP & 한류백서 2011'

6

한류의 지금을 보다

2.3 일본 한류 뮤지컬 관객 분석

팬클럽 기반 장기 응원 문화

소장가치 중요

“한 번 팬이 되면 충성도가 높아 이탈을 낮으며 장기적으로 응원하는 문화가 일반적”

[동방신기 팬클럽 사례]

- '05년 1기 발족, 동방신기가 2인 체제 ('10년) 이후 3만 명 증가하는 등 꾸준한 회원 증가
- 회지, DVD, 한정 MD 구매권, 팬미팅 제공

→

- 회원 : '11년 기준 17만 명
- 회비 : 연 5,000엔
- 추정매출 : 연 1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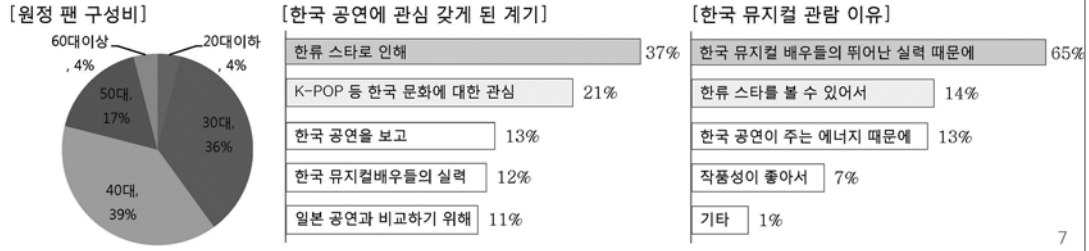
“소장욕구 高, 저작권 존중, 다양한 Merchandising 소비”

- 음악 패키지 시장 세계 1위, J-pop 팬은 연 평균 앨범 6장 구매
- '11년 4분기 음악 DVD 생산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
- AVEX, Amuse 분석 결과 MD매출이 티켓매출과 동일한 수준의 규모 유지

“스타벅스 한정 텀블러 66종”



[한국 뮤지컬 관람 위해 방한 경험 있는 일본인 원정 팬 설문조사 결과 (총96명 대상)]



(출처: 월간 '더뮤지컬' 12년 6월호 특집기사)

3. 일본 시장 분석 종합

미국, 영국에 이은 세계 3대 시장의 하나, 우수한 인프라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내수 고객 위주의 시장이 매우 성숙해 있음

매우 성숙한 내수 시장이 소폭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티켓, MD, 협찬 등 체계적인 산업화로 수익성이 높음

경쟁 환경이 치열해 자력 진출은 어려우며 글로벌 사업에 적극적인 우수한 파트너사 확보 필요함

<p>시장 수익성 ▶ 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뮤지컬 시장 규모 약 1조원 - 2000년 이후 뮤지컬 공연 회수는 매년 3~5% 증가 - 1인당 평균단가 약 13만원으로 국내 보다 높음 - 공연 기간 1~2주로 짧음 	<p>경쟁 현황 ▶ 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메이저 업체가 전체 시장 80% - 메이저 업체는 확고한 콘텐츠 라인업과 일본 내 네트워크 확보하고 있으며, 방송사와 연계기획사 중심의 인기 프로덕션, 내실있는 중소 제작사 다수 존재
<p>콘텐츠 니즈 ▶ 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문화, 팬클럽 문화로 MD구매 욕구 큼 - 전체 시장에서 일본 창작물 비중 5% 미만 - 한류콘텐츠 영향력 확대 및 다양화되어가나 뮤지컬부문 성공 사례 부재 	<p>제작 인프라 ▶ 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인프라 충분함, 대형, 중소형 모두 다 - 정부의 문화지원으로 지방 공연장 인프라 우수 - 다양한 개성의 스태프 및 배우 자원 풍부 - 메이저 업체는 강력한 자체 인프라 보유

한류에 대한 니즈는 있으나 한국 콘텐츠는 진입 초기 MD 구매 욕구 큼

공연 사업을 위한 공연장 및 인력 등 infra가 충분히 존재하며, 인프라 가동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 니즈 有

4.1 K- 뮤지컬 진행 현황 (2011년~2013년)

연도/월	기간	회	타입	공연명	공연장	규모	CAST	제작사(한국)	제작사(일본)
2011년 6월	6/11~30	20	투어	궁	교토 오사카미나미좌	1,078	규종 등	그룹에이트	쇼치쿠
2011년 10월	10/3~11/6	36	투어	미녀는괴로워	오사카 쇼치쿠좌	1,039	규리, 성제 등	쇼노트, CJ E&M	쇼치쿠
2011년 12월	12/16~12/30	20	투어	궁	도쿄 국제포럼홀C	1,502	성모, 규종 등	에이트	쇼치쿠,PIA
2012년 2월	2/4~2/16	20	라이선스	빨래	도쿄 미츠코시 극장	514	현지배우	명랑씨어터 수박	퓨어메리
	2/17~2/18	4	라이선스	빨래	오사카,산케이홀브리제	912	현지배우	명랑씨어터 수박	퓨어메리
	2/1~2/22	30	라이선스	행릿	도쿄 시어터크리에	618	현지배우	EMK	토호
2012년 3월	3/14~3/26	20	라이선스	쓰릴미	도쿄 폰테누	120	현지배우	뮤지컬해븐	호리프로
2012년 4월	4/13~4/21	20	라이선스	커피프린스	도쿄 아오야마극장	1,200	현지배우		네르케, 던컨
2012년 5월	5/10~5/13	6	라이선스	커피프린스	오사카 산노미야 피로티홀	1,030	현지배우		네르케, 던컨
2012년 7월	7/3~7/20	20	라이선스	드림하이	도쿄 신국립극장 중극장	1,038	현지배우		TBS, AVEX, NELKE
	7/15~7/29	27	복합	쓰릴미	도쿄 은하극장	746	현지배우	뮤지컬해븐	호리프로
2012 8월	8/22~27	10	라이선스	빨래	도쿄 미츠코시 극장	514	현지배우	명랑씨어터 수박	퓨어메리
2012 9월	9월	20	투어	궁	도쿄 유포트홀	1,803	성모, 강인 등	그룹에이트	쇼치쿠,PIA
2012년 9월	9/16~10/8	30	투어	잭더리퍼	도쿄 아오야마극장	1,200	안재욱, 성민 등	M뮤지컬컴퍼니	Quaras
2012년 10월	10/3~11/4	34	투어	런투유	오사카 쇼치쿠좌	1,039	초신성 등	CJE&M	쇼치쿠
2012년 11월	11/10~12/02	32	투어	광화문연가	오사카 신가부키좌	1,453	유노윤호	광화문연가	
2013년 1월	1/1~1/26	30	투어	광화문연가	도쿄메이지좌	1,368	성제,지오	광화문연가	
2013년 1월	1/11~1.26	20	투어	절.베.술	도쿄ACT	1,300	김다현, 전동석	CJE&M	PIA
2013년 3월	3/14~3.24	19	통합	쓰릴미	도쿄은하극장	1,300	최재웅 최지호	뮤지컬해븐	호리프로

9

4.1 K-뮤지컬 진행 현황 (2011년~2013년)

연도/월	기간	회	타입	공연명	공연장	규모	CAST	제작사(한국)	제작사(일본)
2013년 4월	4/25~5/6	16	라이선스	총각네야채가게	도쿄 혼다극장	386	현지배우	라이브주식회사	와타나베프로
2013년 5월	5/11~5/12	2	라이선스	총각네야채가게	오사카 모리노미야	1,030	현지배우	라이브주식회사	와타나베프로
2013년 5월	5/31~0/1	3	투어	화려한휴가	도쿄 티아라고토	1,000	손현정,이승근	메이엔터테인먼트	우타고에전국협의회
2013년 4월	4/12~4/19	15	투어	섬머스노우	오사카아마가사키공연장	1,800	성민,성제	은하수엔터테인먼트	
2013년 8월	8/10~8/24	25	투어	삼총사	도쿄 분카무라 오차드홀	2,100	신성우, 샤이니	엠뮤지컬	쿠아라스
2013 10월		35	투어	잭더리퍼	요코하마 카트	2000	안재욱, 2PM 염기준, 성민	엠뮤지컬	쿠아라스
2013년 4월 2014년 1월	9개월	150여회	투어	김종욱찾기 외7	아뮤즈 뮤지컬 시어터	800		CJ E&M	아뮤즈엔터테인먼트

그 외 2010년 하반기 <천번째 남자>, <해를 품은 달> 등 공연 진행

10

제3차 한류NOW 정기세미나
한류의 지금을 보다

4. 기진행된 K-MUSICAL 을 통해 본 특성

2011년 ~ 2013년 약 25개 작품이 700여회 공연됨 / 90% 이상의 공연이 투어 형식으로 진행됨

90% 이상이 한국 창작뮤지컬, 이 중 50% 이상 한국 드라마, 영화

대부분의 작품에 한류 스타 (아이돌 그룹, TV 스타) 등이 출연하여 기존 팬 중심으로 관객형성

유료 점유율 50% 이상 작품이 전체의 20% 수준

최고 티켓 가격 16만원 (17만원) 까지 / 스타 티켓을 볼모로 패키지 티켓 판매하여 완성

한국에서는 공연되지 않고 일본향으로 제작된 공연도 생겨남

11

5. 일본 내 K-MUSICAL 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장점 및 단점

**기회
및
장점**

- **관객층 점진 확대**
기존 아이돌 팬층에서 뮤지컬 팬으로 전향
- **한국 배우들의 뛰어난 실력**
- 한국 배우들의 노래, 연기, 춤 평가 高
- **한국 창작 작품에 대한 평가 好**
- 스토리, 음악 등 한국 창작진 실력 인정

**문제점
및
약점**

- **일부 스타들 경쟁 모시기로 제작비 치솟음**
- 일부 배우들의 개런티 상승, 급한 공연일정 등으로 사업성저하
- **킬러 작품 및 대표 레터토리 부재**
- 일부 작품들의 퀄리티 문제 제기 됨
- **일본 메이저 제작사와의 연계작업 없음**
- 일본 뮤지컬 메인 관객들의 진입도 낮음

전략 방향

1. 원천 콘텐츠 확보로 다양한 사업화 추구

- 한국이 원천 IP 를 확보, 투어, 라이선스 등 다각화
- 장기적인 사업 플랜으로 콘서트, MD사업 추진

2. 현지 공동제작등 Localisation

-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캐릭터 반영
- 일본 배우들 영입으로 메인 뮤지컬 관객 유입
- 성공사례 있는 메이저 제작사와 협업. 현지시장
- 예서의 사업에 대한 노하우 습득 必

3. 아시아,글로벌 진출의 기회로 활용

- 일본에는 세계적인 원천 콘텐츠 존재
- 한국의 창작 시스템으로 현지 제작사와 함께
-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계기로 전환

12

세션 II 한류 장르 집중 탐구

미술한류-한국 미술의 해외 진출 상황과 과제

김달진

김달진미술연구소장

미술한류 - 한국미술 해외 진출 상황과 과제

김달진 (김달진미술연구소장)

미술한류에 대한 특집



「한국현대미술 해외진출 60년 1950-2011」



미술세계 2011년 8월호 「한국미술해외진출의 어제와 오늘」

제3차 한류NOW 정기세미나 한류의 지금을 보다

미술한류에 대한 특집

국내외 전문가 15인이 진단하는 세계 속의 한국 미술

미술에서도 韓流는 가능한가?

서행하는 글로벌 흐름과 자국의 특색이 융합된다. 이를 토대로 한국 미술계의 현재와 미래를 살핀 후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스스로를 글로벌 문화의 국제적 네트워크 속에 소용의 힘을 아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특성을 전방위적으로 가늠하여 지는 것은 이 지점이 대중문화의 지평에서 새로운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한다는 단호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 지점에서 한국 미술의 현실을 진단하고, 국내외적으로 나아가는 다양한 수를 정책적 방향성, 한국 미술계에서 인정받는 결과에 근거하는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후 어떤 것이 가파라는 지평을 다루며 다양한 한류의 그림자에서 보이는 모습과 한국적 다문화 현상을 바탕으로 한 지적적 논의를 전개한다.

★

* 본 특집은 2012년 11월 15일(목) 서울에서 열린 '한류의 지금' 세미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특집의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한류의 지금

한국을 뛰어넘는 한국미술을 말한다 — 해외 인사 11인의 현장 체험기

2000년 이후, 한국 문화의 키워드는 단연 '한류'다. K-드라마, K-영화 등 한국 대 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북미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과연 이 최근 한류 열풍이 한국 미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책은 '한류 열풍'을 경험한 해외 인사 11인의 현장 체험기를 통해 한류 열풍이 한국 미술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한국 미술계의 현재와 미래를 살핀 후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스스로를 글로벌 문화의 국제적 네트워크 속에 소용의 힘을 아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특성을 전방위적으로 가늠하여 지는 것은 이 지점이 대중문화의 지평에서 새로운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한다는 단호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 지점에서 한국 미술의 현실을 진단하고, 국내외적으로 나아가는 다양한 수를 정책적 방향성, 한국 미술계에서 인정받는 결과에 근거하는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후 어떤 것이 가파라는 지평을 다루며 다양한 한류의 그림자에서 보이는 모습과 한국적 다문화 현상을 바탕으로 한 지적적 논의를 전개한다.

미국, 존 카이스트, 미국 예술가 협회 회장, 2012년 11월 15일(목) 서울에서 열린 '한류의 지금' 세미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특집의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한국, 김홍도, 한국 미술사 연구자, 2012년 11월 15일(목) 서울에서 열린 '한류의 지금' 세미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특집의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중국, 장웨이웨이, 중국 미술사 연구자, 2012년 11월 15일(목) 서울에서 열린 '한류의 지금' 세미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특집의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일본, 이노우에 히로유키, 일본 미술사 연구자, 2012년 11월 15일(목) 서울에서 열린 '한류의 지금' 세미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특집의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미국, 데이비드 호크니, 영국 미술사 연구자, 2012년 11월 15일(목) 서울에서 열린 '한류의 지금' 세미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특집의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미국, 마이클 샌더스, 미국 미술사 연구자, 2012년 11월 15일(목) 서울에서 열린 '한류의 지금' 세미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특집의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미국, 데이비드 호크니, 영국 미술사 연구자, 2012년 11월 15일(목) 서울에서 열린 '한류의 지금' 세미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특집의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미국, 마이클 샌더스, 미국 미술사 연구자, 2012년 11월 15일(목) 서울에서 열린 '한류의 지금' 세미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특집의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미국, 데이비드 호크니, 영국 미술사 연구자, 2012년 11월 15일(목) 서울에서 열린 '한류의 지금' 세미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특집의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미국, 마이클 샌더스, 미국 미술사 연구자, 2012년 11월 15일(목) 서울에서 열린 '한류의 지금' 세미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특집의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한국현대미술 해외진출 60년 1950-2011」 아트인컬처 2012년 1월호 「한국을 뛰어넘는 한국미술」

미술한류에 대한 특집

한국 현대미술, 해외 진출의 역사

한국 현대미술의 해외 진출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초기 진출,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중기 진출,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의 후기 진출이다. 초기 진출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기 진출은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후기 진출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초기 진출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중기 진출은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후기 진출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초기 진출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중기 진출은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의 후기 진출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초기 진출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의 중기 진출은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의 후기 진출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컨템포러리 아트저널 15호 2013년 11월 「예술의 세계화, 그 환영과 실체」

본 특집은 2013년 11월 15일(목) 서울에서 열린 '한류의 지금' 세미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특집의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특집은 2013년 11월 15일(목) 서울에서 열린 '한류의 지금' 세미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특집의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특집은 2013년 11월 15일(목) 서울에서 열린 '한류의 지금' 세미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특집의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특집은 2013년 11월 15일(목) 서울에서 열린 '한류의 지금' 세미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특집의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은 본 세미나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I. 국내작가 외국전시 연간 변화

김달진미술연구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연감 시각예술부분의 현황분석을 하고 있음. **2013 문예연감**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국내작가가 외국에서 전시 또는 국제전 등에 참여한 전시는 총 **34개**의 국가에서 **419건**으로 집계. 최근 5년 동안 외국에서 소개되었던 국내 작가 외국전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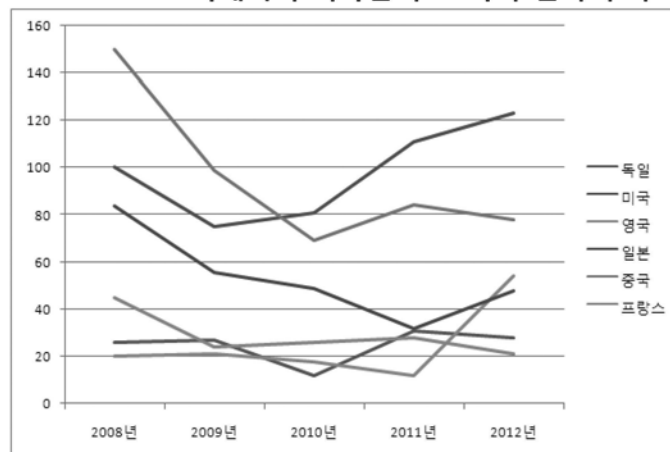
2008 - 2012 국내작가 외국전 연간 변화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내작가 외국전	508	376	304	364	419
국가 수	33	39	31	33	34

2008 - 2012 국내작가 외국전 주요 국가 전시 추이

국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독일	26	27	12	31	27
미국	100	75	81	111	124
영국	20	21	18	12	54
일본	84	56	49	32	49
중국	150	99	69	84	78
프랑스	45	24	26	28	21

2008 - 2012 국내작가 외국전 주요 국가 전시 추이



한류의 지금을 보다

2012 국내작가 외국전 국가별 통계

국가	횟수	비율
미국	124	29.59%
중국	78	18.62%
영국	54	12.89%
일본	49	11.69%
독일	27	6.44%
프랑스	21	5.01%
이탈리아	9	2.15%
스위스	7	1.67%
아랍에미리트	7	1.67%
대만	6	1.43%
싱가포르	4	0.95%
터키	4	0.95%
필리핀	3	0.72%
스페인	2	0.48%
아르헨티나	2	0.48%
인도	2	0.48%
캐나다	2	0.48%
홍콩	2	0.48%
기타	16	3.82%
합계	419	100.00%

II. 국내화랑의 주요 해외 아트페어 및 경매 낙찰 성과

1. 아트페어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화랑협회를 통해 외국아트페어에 재정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전국의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미술관을 대상으로 미술시장실태조사를 수행했음. 그 조사에 따르면 2007년~2011년 국내화랑의 해외아트페어 참가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07 - 2011 한국 화랑 해외아트페어 참가 현황

성과항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참가 아트페어수 (개)	21	26	18	17	19
참가 화랑수 (개)	50	65	47	50	41
매출실적 (천원)	7,000,000	9,000,000	6,600,000	7,600,000	7,900,000

2. 경매

2012년 10월 아트프라이스가 발표한 '현대미술시장(Contemporary Art Market)'에 따르면, 낙찰 상위 500위 중 한국작가는 총 5명으로 서도호, 고영훈, 이불, 강형구, 최소영 순임. 2010년 대비 2011년 순위가 상승한 작가는 서도호, 고영훈, 이불이며, 이불작가는 657위 상승함.

현대미술분야 낙찰총액 500위 순위 중 한국작가 리스트

순위 2011년	순위 2010년	작가명	2011년		2010년	
			낙찰총액	최고 낙찰가액	낙찰총액	최고 낙찰가액
194	168	서도호(1962)	€564,512 8.7억원	€205,400 3.2억원	€685,085 10.6억원	€223,560 3.4억원
322	445	고영훈(1952)	€263,879 4.1억원	€57,800 0.9억원	€182,632 2.8억원	€62,958 1.0억원
365	1022	이불(1964)	€234,064 3.6억원	€98,401 1.5억원	€53,910 0.8억원	€53,910 0.8억원
477	232	강형구(1954)	€167,730 2.6억원	€116,280 1.8억원	€432,387 6.7억원	€82,662 1.3억원
493	410	최소영(1980)	€162,415 2.5억원	€564,512 8.7억원	€200,172 3.16억원	€97,250 1.56억원

Ⅲ. 미술한류를 이끈 큐레이터 및 작가

국제적 역량의 전시기획자 - 김선정



1965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학력 이화여대 미대 서양화과 학사, 미국 미시간주
 크랜브룩 미대 석사
수상 2004년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2003년 프랑스대사관 문예공로훈장 슈발리에장
 2002년 월간미술대상 전시기획부문

- 2013 미지의 힘(Unknown Forces)>, 토티네 이 아미레 컬처 앤 아트 센터, 이스탄불, 터키
- 2012 카셀 도큐멘타 13, 카셀, 독일 / 아시아 에이전시 - 작가추천만 한 경우
- 2009 당신의 밝은 미래: 12인의 한국현대미술전, LA카운티미술관, 로스앤젤레스, 2009 / 휴스턴미술관, 휴스턴
- 2007 <Beautiful New World>, Long March Space, Inter Arts Center, TOKYO GALLERY+BTAP, Beijing & Guangdong Museum of Art, 광저우
- 2005 제51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Secret beyond the door>
- 2003 <양광찬란: BizArt Center>, Eastlink Gallery and ShanghArt Suzhou Creek Warehouse, 상하이, 중국
- 2002 <Under Construction>, The Japan Foundation Asia Center, Tokyo Opera City Cultural Foundation, 동경, 일본

Ⅲ. 미술한류를 이끈 큐레이터 및 작가

국제적 역량의 전시기획자 - 김승덕



1954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소속 르콩소르시옹 (디렉터)
 학력 한터대학대학원 미술사 석사
 수상 1978 뉴욕 메리카운틴 대학교 졸업 우등상(Magna cum Laude)
 1981 뉴욕대학 최우수 학생상
 2008 이화를 빛낸 상, 문화 예술부문

- 2013 김수자 To Breathe : Bottari, 제55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이탈리아 베니스
- 2010 린다 벙글리스 Lynda Benglis, 르 콩소르시옹(프랑스 디종) 외 5개 미술관: 반 아베 미술관(네덜란드 아인트호벤), 아일랜드 현대미술관(아일랜드 더블린),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 미술관(미국 프로비덴스), 뉴 뮤지엄(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미국 로스앤젤레스)
- 2008 쿠사마 야요이 Yayoi Kusama : Mirrored Year, 보이만스 반 보닝겐 미술관(네덜란드 로테르담), 시드니현대미술관(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웰링턴시립미술관(뉴질랜드 웰링턴)
- 2007 쿠사마 야요이, Yayoi Kusama : Dots Obsession - Love Transformed into Dots, 하우스 데어 쿤스트, 독일 뮌헨
- 2007 Elastic Taboos : Within the Korean World of Contemporary Art, 쿤스트할레 빈, 오스트리아 빈
- 2006 안 페이밍 Execution : Exhibition of Yan Pei-Ming, 생테티엔현대미술관, 프랑스 생테티엔
- 2005 Thoughts of a Fish in the Deep Sea, 발렌시아 비엔날레, 스페인 발렌시아
- 2005 Domicile : Prive/public, 생테티엔현대미술관, 프랑스 생테티엔
- 2004 Flower Power, 릴 2004 전시 프로젝트, 유럽 문화 수도, 릴 미술관, 팔레 라모, 프랑스 릴

Ⅲ. 미술한류를 이끈 큐레이터 및 작가

국제적 역량의 전시기획자 - 윤재갑



1954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학력 홍익대 예술학과 졸업
 중국 중앙미술학원, 인도 타고르 대학 인도미술사 석사과정 수료

- 2010 플라스틱가든: 한국현대미술전, 중국 상하이 민생현대미술관
- 2010-현재 2011 제54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커미셔너
- 2010.10-현 중국 상하이 민생현대미술관 예술감독 내정
- 2005-10.3 아라리오 갤러리 총괄 디렉터 (천안-북경-서울-뉴욕)

Ⅲ. 미술한류를 이끈 큐레이터 및 작가

국제적 역량의 전시기획자 – 이대형



1974년 3월 30일 (경기도 화성)
 소속 Hzone (대표)
 학력 컬럼비아대학교 대학원 큐레이터학 석사
 경력 2009 파이낸셜뉴스 칼럼니스트
 Hzone 대표

- 2013 Opposite of Market Forces, OSAGE art foundation, 홍콩
- 2012 한중 수교 20주년 특별전: 솔리드 일루전(Solid illusion) 디렉터, 중국 베이징
- 2011 아트 베이징 특별관: 살롱 드 퓨처(salon de Future) 디렉터, 중국 베이징
- 2011 현대카드-뉴욕MoMA 큐레이터 교환 프로그램 디렉터, 현대카드 본사, 서울, 한국
- 2010 Korean Eye-Fantastic Ordinary, Saatchi Gallery, 영국 런던
- 2010 Collage of Memories, SOKA Art Center, 중국 베이징
- 2009 Korean Eye Moon Generation, Saatchi Gallery, 영국 런던
- 2006 빛의 흔적 II: 물감의 진화, 공간 이음, 중국 베이징

Ⅲ. 미술한류를 이끈 큐레이터 및 작가

국제적 역량의 전시기획자 – 이원일



1960년 - 2011년 1월 11일
 학력 뉴욕대학교 대학원

- 2009 체코 프라하 비엔날레 공동큐레이터
- 2007.06 독일 ZKM 아시아 현대미술전 총감독
- 2006 미디어시티 서울 전시 총감독
- 2006 상하이비엔날레 전시공동감독
- 2005 상하이 젠다미술관 개관전 초빙감독
- 2004 제5회 광주비엔날레 아시아담당 큐레이터
- 2004 타이베이 모카 디지털쇼 감독

Ⅲ. 미술한류를 이끈 큐레이터 및 작가

국제적 명성의 한국작가- 강익중

1960년 충청북도 청주 출생.

학력 1984년 홍익대 서양화과 졸업

1987년 미국 프랫인스티튜드 졸업



- 2012 Things I know, Sabina Lee Gallery, Los Angeles, CA
- 2010 Ik-Joong Kang: Mountain / Wind, Alexander Ochs Gallery, Beijing, China
- 2010 Things I know, Korean pavillion in Shanghai Expo, Shanghai, China
- 2010 25 Wishes, Korean Gallery 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NY
- 2009 Moon Jars, Neuffer am Park Kunsthalle, Pirmasens, Germany
- 2008 Ik-Joong Kang: Mountain / Wind, Alexander Ochs gallery, Berlin, Germany
- 2008 Ik-Joong Kang / Inexorable Dream; The Korean Affair, Andrew Bae Gallery, Chicago, IL
- 2008 Recent Works, Kang Collection, New York, NY
- 2008 Recent Works, Alexander Ochs Gallery, Berlin, Germany



Things I know, Sabina Lee Gallery, Los Angeles, CA 2012



Ik-Joong Kang : Mountain / Wind, Alexander Ochs Gallery, Beijing, China 2010



Moon Jars, Neuffer am Park, Pirmasens, Germany

Ⅲ. 미술한류를 이끈 큐레이터 및 작가

국제적 명성의 한국작가- 김수자

1957년 대구 출생
학력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학사



- 2013 Kimsooja / Unfolded, Vancouver Art Gallery, Vancouver, Canada
- 2013 Kimsooja, To Breathe: Bottari, The Korean Pavilion, 55th Biennale di Venezia, Venice, Italy
- 2013 Kimsooja, An Album: Borderlines, Mariposa Land Port of Entry, Arizona, USA
- 2012 Kimsooja: A Needle Woman, Miami Art Museum, Miami, USA
- 2012 Kimsooja, D'Art Moderne de Saint Etienne, St. Etienne, France
- 2012 Calm Chaos: Kimsooja's Earth - Water - Fire - Air, Perm Museum of Contemporary Art, Perm, Russia
- 2012 Kimsooja, Kunsthall 44 Moen, Askeby, Denmark
- 2011 Kimsooja, University Museum of Contemporary Art, Massachusetts, USA
- 2011 Kimsooja, Mumbai - A Laundry Field, Sullivan Gallery, School of the Institute of Chicago, Chicago, USA
- 2011 Kimsooja, A Needle Woman, Lucidity. Inward Views, Le Mois de la Photo, Maison de la Culture Frontenac, Montreal, Canada
- 2010 Kimsooja, Earth - Water - Fire - Air, NPPAP - Yong Gwang Nuclear Power Plant Art Project, Organized by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outh Korea,
- 2010 Kimsooja, Being in the World / Être au Monde, Musée d'art de Joliette, Joliette, Quebec, Canada
- 2010 Kimsooja, Mumbai: A Laundry Field, Feldkirch Church, Co-organized by Kunstmuseum Lichtenstein, Lichtenstein
- 2010 Kimsooja, Gallery Tschudi, Zuoz, Switzerland



Encounter - Looking into Sewing, 44Møen, Denmark, 2012



A Needle Woman, 1999 – 2001, Miami Art Museum, 2012



Kimsooja, Bottari: The Island, Palazzo Fortuni, Venice, 2011

Ⅲ. 미술퉠퉒를 이끈 큐레이터 및 작가

국제적 명성의 한국작가- 서도호

1962년 서울 출생

학력 ~ 1997 예일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석사

~ 1994 로드아일랜드디자인학교 회화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석사

서울대학교 회화과 학사

수상 2013 올해의 혁신가상

2004 제19회 선미술상

2003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



- 2012 Fallen Star, Stuart Collec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alifornia, USA
- 2011 Luminous: The Art of Asia, Seattle Art Museum, Seattle, Washington, USA
- 2011 Wielandstr. 18, 12159, DAAD Galerie, Berlin, Germany
- 2011 A Perfect Home, Lehmann Maupin, New York, New York, USA
- 2011 Do Ho Suh, Singapore Tyler Print Institute(STPI), Singapore
- 2011 Staircase-III, Tate Modern, London, UK
- 2010 Bridging Home, Touched, Liverpool Biennial, Liverpool, UK
- 2010 A Perfect Home: Bridge Project, Storefront for Art and Architecture, New York, USA
- 2010 Karma, Albright-Knox Art Gallery, Buffalo, New York, USA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속의 집, 2013



서울 집 / 서울 집, 2012



별동별 - 1/5, 2008-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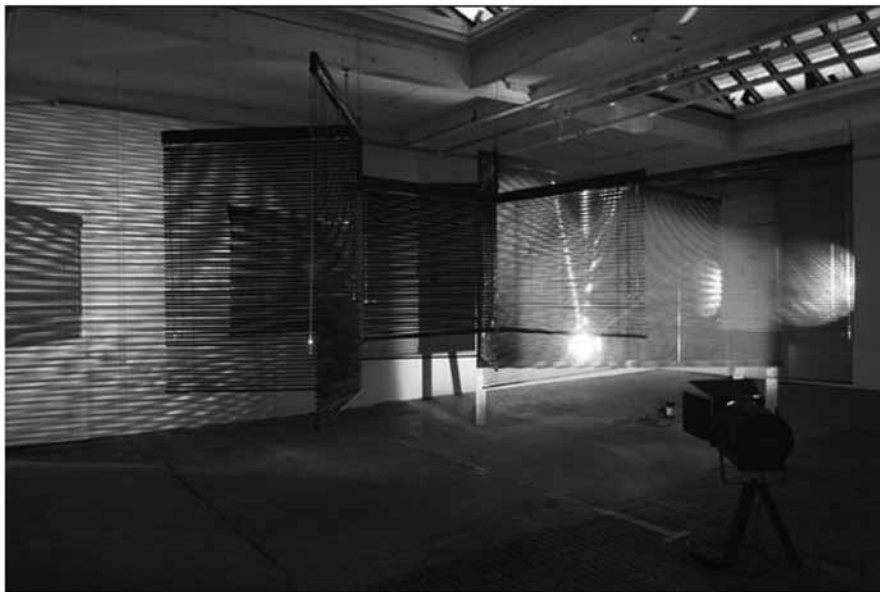
Ⅲ. 미술한류를 이끈 큐레이터 및 작가

국제적 명성의 한국작가- 양혜규

1971년 서울 출생
학력 서울대학교 조소학 학사
수상 2010년 제21회 김세중 청년조각상



- 2012 Fallen Star, Stuart Collec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alifornia, USA
- 2009 '용결', 제53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베니스, 이탈리아
- 2009 '내부자의 온전성', 워커 아트센터, 미네아폴리스, 미국
- 2008 '비대칭적 평등', 레드캣 아트센터, 로스앤젤레스, 미국
- 2008 '남매와 쌍둥이', 포르티쿠스 미술관, 프랑크푸르트, 독일
- 2008 '대칭적 불평등', 살라 레칼데, 빌바오, 스페인
- 2008 '치명적인 사랑', 큐빗 갤러리, 런던, 영국
- 2007 '창고 피스 풀기', 하우브록 소름, 베를린, 독일
- 2007 '숲 속의 여사', 데핑딩스 화랑, 브뤼셀, 벨기에



치명적인 사랑, 영국 런던 큐빗갤러리, 2008



일련의 다치기 쉬운 배열 - 바젤 7광, 스위스 바젤 전시 장면, 2007



창고피스, 제27회 상파울로 비엔날레 전시 장면, 2006년 10월 7일 - 12월 17일

Ⅲ. 미술한류를 이끈 큐레이터 및 작가

국제적 명성의 한국작가- 육근병

1957년 전라북도 전주 출생
학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소속 일본 동북예술대학 (교수)
수상 2007년 제10회 일맥문화대상 문화예술상
한국 미술기자협회 미술기자상
경력 2007~ 일본 동북예술대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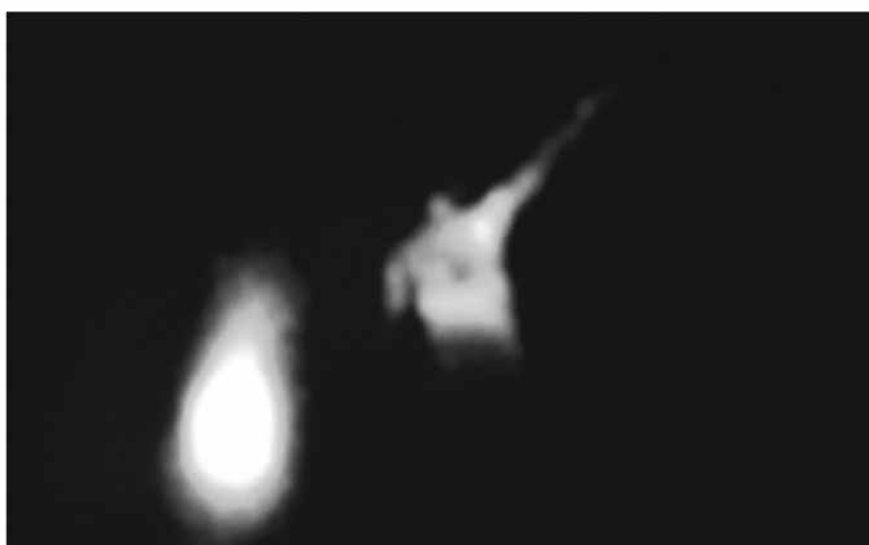
- 2012 Re-Booting , The Yan Huang Art Museum. Beijing .China
- 2009 The Exhibition of Artists in Residence Program 2009 Spring ,Aomori Contemporary Art Center, JAPAN
- 2009 Identity V ,Nichido contemporary art, JAPAN
- 2006 Das Kritische Auge <The critical eye> ,Des Neuen Kunstvereins Aschaffenburg im KunstLANDing, GERMANY
- 2005 Des velar lo invisible video creacion contemporanea , Courtesy of the Comunidad de Madrid Culture and Sports Milano. SPAIN
- 2005 BABY Project 2002-2010 , Contemporary Art Museum, Kumamoto, JAPAN
- 2005 PHOTO & visual installation , KENZI TAKI gallery. Tokyo. Japan
- 2003 PAINTING & DRAWING , gallery Q. Tokyo Japan
- 2003 PRINT, print house OM. Yokohama. Japan



Site energy, 2010



1996-02



eye fruit,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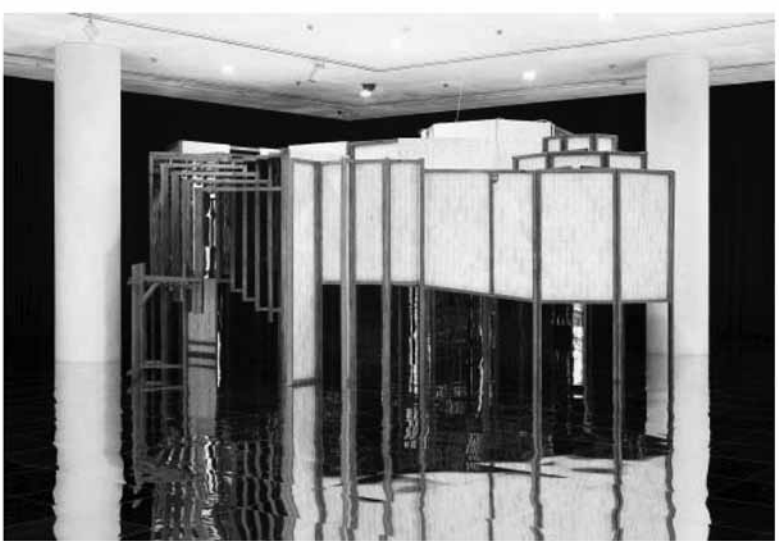
Ⅲ. 미술한류를 이끈 큐레이터 및 작가

국제적 명성의 한국작가- 이불

1964년 강원도 영월 출생
 학력 홍익대학교 조소과 학사
 수상 2002년 제13회 석주미술상
 1999년 제48회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특별상
 경력 2010.09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민간위원



- 2013 abeka, 룩셈부르크 현대미술관, 룩셈부르크
- 2012 BIOS-Konzepte des Lebens in zeitgenossischen Skulptur, 게오르크 콜베 미술관, 베를린
- 2012 Invisible Cities, 매사추세츠 현대미술관, 노스애덤스, 매사추세츠
- 2010 레만 모핀 갤러리, 뉴욕
- 2010 Transformation, 도쿄 현대미술관, 도쿄
- 2010 New Decor, 헤이워드 미술관, 런던; Garage 컨템포러리 문화센터, 모스크바 순회
- 2009 타데우스 로팍갤러리, 파리
- 2008 Fluid Street. Alone, Together, 키아즈마 현대미술관, 헬싱키
- 2008 Fragile Beauty, 쿤스트 팔라스트 미술관, 뒤셀도르프
- 2007 제10회 이스탄불 비엔날레, 후 한류 큐레이터
- 2007 Grobal Feminism, 브루클린 미술관, 뉴욕
- 2007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파리
- 2007 도무스 아티움 02, 살라망카



비아 네가티바, 2012



무제 (Untitled ("Infinity" wall)), 2008



사이보그 W5, 1999

Ⅲ. 미술평류를 이끈 큐레이터 및 작가

국제적 명성의 한국작가- 이용백

1966년 4월 19일 (경기도 김포)

학력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 예술대학 연구심화 과정 조각과 졸업.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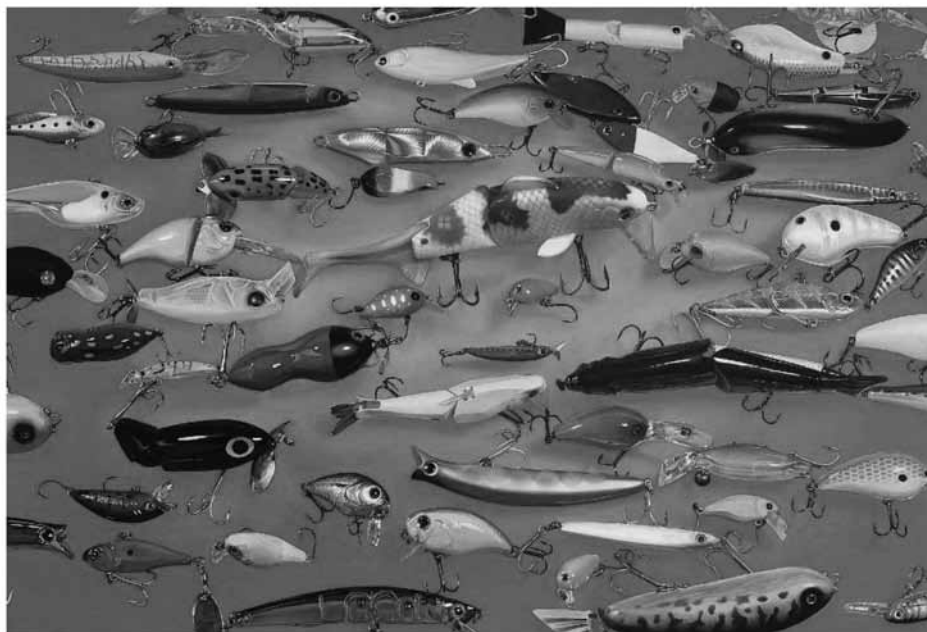
수상 2003년 월간미술 선정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젊은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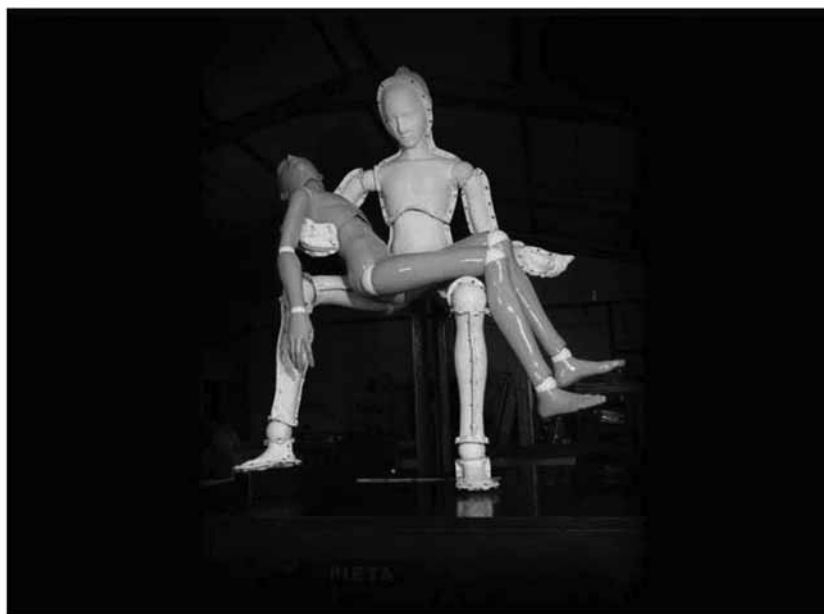
- 2011 핀갤러리, 베이징
- 2011 제54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참여작가
- 2007 뉴폴더, 아라리오베이징, 베이징, 중국



Angel Soldier_Photo_no.2, 2011



플라스틱 피쉬, 2010



피에타, 2008

Ⅲ. 미술한류를 이끈 큐레이터 및 작가

국제적 명성의 한국작가- 전수천

1947 전북 정읍 출생

학력 1978 무사시노 미술대학, 도쿄

1981 와코 대학 예술학과 및 동대학원, 도쿄

1986 프랫 인스티튜트, 뉴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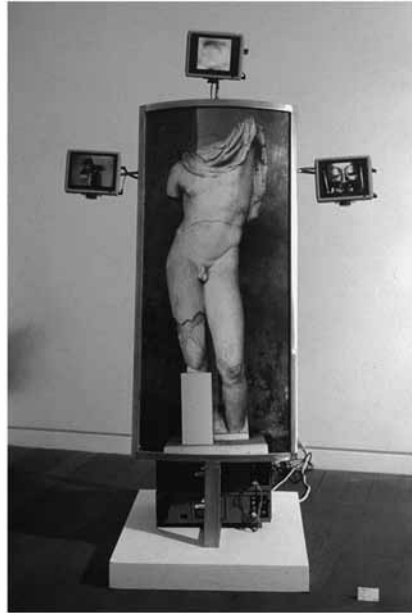
소속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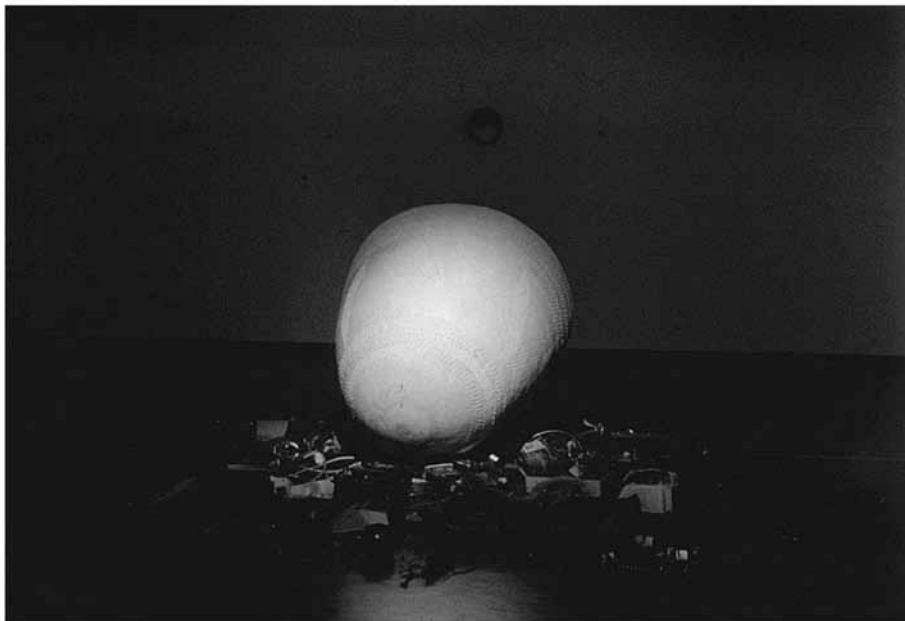
- 2000 베를린 한국문화원 개원 초대전, 베를린
- 2000 시간속의 현실, 랑도프스키 미술관, 파리 사람의 얼굴, 파리
- 1998 한국 현대미술전, 문화예술회관, 베를린
- 1996 상파울로 비엔날레(아시아 대표), 상파울로



White Night, 2000



The Thinker, 2000



Sound, 1998

Ⅲ. 미술한류를 이끈 큐레이터 및 작가

국제적 명성의 한국작가- 최정화

1961년 10월 29일 서울 출생
학력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사
수상 2006년 올해의 예술상
2005년 제7회 일민예술상



- 2013 Tayuan Landscape Art Festival, Taoyuan
- 2013 Breathing Flower, Very Fun Park 2013, Taipei
- 2013 Present of The Sun, Setouchi Triennale 2013, Shodojima Japan
- 2013 Iro Iro Iro, Kunisaki art project, Kunisaki Japan
- 2012 Love, Sweet, Life, K11, Hong kong
- 2012 Festival of the World, Hayward Gallery, London
- 2011 Live Liv, Kotakinabalu, Malaysia
- 2011 My own private neon oasis, Brisbane, Australia
- 2011 Redcat Galla Show, Reacat Gallery, Los Angeles
- 2010 17th Biennale of Sydney, Sydney
- 2010 By day bu night, Rockbund Art Museum, Shanghai



세개의 선물, 2013



《色即是空》Emptiness is Form, Form is Emptiness, M+, Hongkong, 2013



산더미 같은 짐 & 살림, 2013

IV. 한국현대미술해외진출을 위한 영문 단행본 및 미술사이트

1. 한국현대미술 해외진출을 소개한 영문도서



Korean Contemporary Art
기획_한국문화재단,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Hexa
Communications
1995
26×26cm, 15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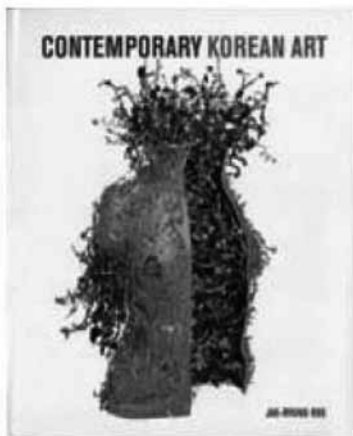
제46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그리고 미술의 해를 계기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한국현대미술 50여 년사를 정리해 펴낸 국영문 단행본. 이경성, 오광수, 이일, 김복영, 서성록, 이용우, 박용숙 등 7명의 평문과 시대별 대표작가 41명을 선정해 각 작가마다 2점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소개작가

김영주 김환기 남관 류경채 유영국 김구림 김창열 박서보 정상화 윤명로 최기원 최만린 하인두 하종현 곽인식 곽훈 권영우 박석원 서승원 심문섭 윤희근 이강소 이반 이우환 이정지 전국광 최명영 하동철 고영훈 김수자 김영원 김영진 오상길 윤동천 이석주 전수천 조덕현 한만영 박생광 이용노 이중섭

IV. 한국현대미술해외진출을 위한 영문 단행본 및 미술사이트

1. 한국현대미술 해외진출을 소개한 영문도서



CONTEMPORARY KOREAN ART
Jae-ryung Roe, Craftsman House
2001
24×27cm, 120쪽

노재령 큐레이터가 한국현대미술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영문 단행본으로 다국적 미술전문 출판사인 호주 크래프트즈먼하우스에서 출간했다. 회화분야에서 서세욱, 이종상, 김호석, 황창배, 문봉선 등을 조각과 설치미술에서는 심문섭, 이형우, 윤석남, 김수자, 강익중 등을 그리고 당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었던 젊은 작가로 구분창, 배병우, 이불, 노상근 등을 작품 해설 중심으로 소개했다.

IV. 한국현대미술해외진출을 위한 영문 단행본 및 미술사이트

1. 한국현대미술 해외진출을 소개한 영문도서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Korea
 김영나 저, 한국국제교류재단 : Hollym Corporation
 2005
 24x19cm, 110쪽

식민시대부터 전후(戰後)미술, 모노크롬 회화, 민중미술, 오늘날의 한국미술에 이르는 한국근현대미술의 전반을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술에 관해서도 언급하며 한반도미술의 포괄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루었다.

IV. 한국현대미술해외진출을 위한 영문 단행본 및 미술사이트

1. 한국현대미술 해외진출을 소개한 영문도서



20th Century Korean Art
 20세기 한국 미술
 김영나 저, Laurence King Publishing Ltd.
 2005
 24.5x18.5cm, 283쪽

20세기 초 신문화의 하나로 서양 미술기법이 소개된 이후 우리나라의 미술이 서구 미술과 전통 사이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영문으로 소개한 책. 해방 이전과 이후의 우리 근·현대 미술에 관한 개관, 30년대의 전위 그룹, 한국근대조각의 흐름과 성격, 한국 화단의 영포르멜 운동, 1970년대 모노크롬 회화와 80년대 민중미술, 90년대 한국현대미술 등을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이 인성과 김환기 등 작가론을 실었다.

IV. 한국현대미술해외진출을 위한 영문 단행본 및 미술사이트

1. 한국현대미술 해외진출을 소개한 영문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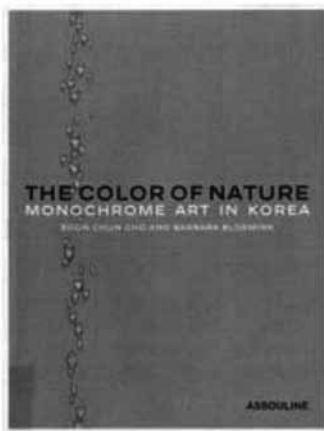


MODERN KOREAN INK PAINTING
정형민 저, 한국국제교류재단 : Hollym Corp.
2006
24×19cm, 158쪽

한국문화시리즈 제 5권인 이 책은 한국미술사 중 조선이 외국의 근현대 문물을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된 1876년 개항이후부터 1980년대까지의 한국미술 변천 과정을 통사적으로 소개한다. 조선왕조의 붕괴, 일제 강점기, 해방, 남북분단, 정치적 민주화, 대중문화의 형성이라는 굵직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 속에 반영되어 다양한 예술 양식으로 승화되었다. 필자는 한국미술사에서 현대적(modern)이란 용어가 가지는 의미를 정의하면서 전통적인 미학과 형식의 진화과정, 한국미술이 대표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IV. 한국현대미술해외진출을 위한 영문 단행본 및 미술사이트

1. 한국현대미술 해외진출을 소개한 영문도서



THE COLOR OF NATURE Monochrome Art in Korea
조순천, 바바라 블로에밍크 공저, Assouline Publishing
2008
31x23.5cm, 239쪽

독립큐레이터 조순천과 라스베이거스 구겐하임 전 디렉터 바바라 블로에밍크(Barbara Bloemink)가 공동 집필하고 미국의 예술전문 출판사 애슬린에서 출간한 영문 단행본으로 한국 모노크롬 회화를 개척해 온 작가 9명의 작품세계를 조명했다. 출간을 기념해 노화랑과 상하이 웰사이드화랑에서 9명 작가의 전시회를 선보였다.

소개작가 : 김창열 박서보 하중현 정창섭 최명영 서승원 이강소 김태호 이승조

IV. 한국현대미술해외진출을 위한 영문 단행본 및 미술사이트

1. 한국현대미술 해외진출을 소개한 영문도서

KOREAN EYE - Contemporary Korean Art

코리아안 아이 - 한국현대미술

Skira Editore S.p.A

2010

24×24.5cm, 389쪽



한국현대미술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잠재력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2009년 '문 제너레이션(Korean Eye: Moon Generation)' 과 2010년 '환상적인 일상(Korean Eye: Fantastic Ordinary)'이라는 주제로 런던사치갤러리, 싱가포르, 서울 등지에서 열린 한국현대미술전 '코리아안 아이 Korean Eye' 전시에 뒤이어 세계적인 미술전문서적출판사인 이태리의 Skira가 70여명의 한국현대미술작가 작품을 수록하여 발간한 책이다. 작가 선정에는 6명의 한국, 외국 큐레이터로 구성된 국제적 큐레이터팀이 선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소개작가

강유진 강형구 고명근 권기수 권부분 권오상 김덕용 김동유 김아영 김용관 김인배 김준 김현수 김현준 김희수 노상균 대비한 윈(김민&최문) 박상호 박선기 박승모 박은영 박정혁 배준성 배찬호 선무 성태진 송필 신미경 심승욱 안두진 원성원 유현미 윤성지 윤종석 윤현수 이강원 이길우 이동욱 이림 이상현 이세현 이수경 이승민 이용덕 이용백 이이남 이재호 이환권 장승호 전준호 정동석 정연두 정해운 조덕현 조훈 지용호 차민영 천경우 천성명 최수양 최우람 최율가 최태훈 추종완 한기창 함경아 홍경택 홍성도 홍성철 홍영인 황인기

IV. 한국현대미술해외진출을 위한 영문 단행본 및 미술사이트

1. 한국현대미술 해외진출을 소개한 영문도서



100.art.kr

아르코미술관 저, 열린책들

2012

28x21cm, 624쪽

수록 작가

강영민, 고낙범, 공성훈, 구동희, 권경환, 권기범, 권오상, 김기라, 김기철, 김나영, 김상길, 김상돈, 김승영, 김신일, 김월식, 김인배, 김종구, 김주현, 김지원, 김창겸, 김홍석, 나현, 남화연, 노순택, 노충현, 문경원, 문성식, 윈, 믹스라이스, 박기원, 박소영, 박원주, 박윤영, 박은하, 박준범, 박진아, 박형근, 배영환, 배종현, 백승우, 성낙희, 손동현, 손정은, 송명진, 송상희, 송필, 신미경, 써니킴, 안강현, 안두진, 안정주, 양아치, 오용석, 오인환, 오형근, 유근택, 유비호, 유승호, 유영호, 유현미, 이동욱, 이명호, 이문주, 이배경, 이수경, 이완, 이용백, 이형구, 이환권, 임자혁, 장지아, 잭슨홍, 전준호, 정상현, 정서영, 정승, 정연두, 정재철, 정재호, 정재호, 정정주, 정직성, 조습, 조해준, 지니서, 진기중, 천경우, 천성명, 최두수, 최수양, 최우람, 최원준, 플라잉시티, 하태범, 한성필, 함경아, 함양아, 함연주, 홍경택, 홍영인

IV. 한국현대미술해외진출을 위한 영문 단행본 및 미술사이트

1. 한국현대미술 해외진출을 소개한 영문도서



KOREAN CONTEMPORARY ART
Miki Wick Kim, PRESTEL
2012
28.5x24.5cm, 1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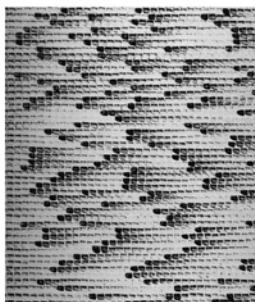
『Korean Contemporary Art』는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미키윌크김갤러리의 대표인 미키윌크 김씨가 한국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책이다. 이 책에선 박서보 화백을 비롯해 김수자, 김아타, 김홍석, 문범, 배병우, 서도호, 오형근, 이수경, 이형구, 전광영, 정수진, 정연두, 조덕현, 최우람, 최정화, 함경아, 함진 등 작가 30명에 대한 소개와 작품사진을 함께 수록했다.

소개작가

백승우, 배병우, 조덕현, 최우람, 최정화, 전광영, 정수진, 김홍석, 함진, 함경아, 전준호, 주마이클, 정연두, 김아타, 김범, 김인숙, 김수자, 김소라, 구정아, 이형구, 임민욱, 문범, 문지하, 오형근, 박기원, 박서보, 이기봉, 신진, 서도호, 이수경

IV. 한국현대미술해외진출을 위한 영문 단행본 및 미술사이트

1. 한국현대미술 해외진출을 소개한 영문도서



Contemporary Korean Art
Tansaekhwa and the Urgency of Method
Joan Kee, Univ Of Minnesota Press
2013
384쪽

한국의 단색화를 연구, 이론, 해설, 분석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명한 영문서적으로 미시간 대학의 미술사 교수인 조앤 기(Joan Kee) 교수가 출간한 '콘템포러리 코리안 아트'(Contemporary Korean Art: Tansaekhwa and the Urgency of Method)는 아직까지 한국 화단에서도 그 용어가 생소한 단색화의 중요성을 국제화단에 부각시킨 최초의 책이다.

한국과 아시아 미술사 전문가이며 비평가로서 한국화단에도 기고하며 널리 알려진 조앤 기 교수는 지난 수년간 깊이 있는 연구와 수많은 자료조사, 작품분석 및 작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 화단에서 단색화가 갖는 의미와 위치와 영향을 이 책을 통해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1장에서는 권영우와 윤형근, 2장 하중현, 3장 이우환, 4장 박서보를 중심으로 기술했고 5장에서 단색화와 아시아 미술의 이상화, 그리고 에펠로그에서는 콘텍스트 이론의 곤경을 다루고 있으며 컬러 작품사진들도 다수 수록하고 있다.

IV. 한국현대미술해외진출을 위한 영문 단행본 및 미술사이트

2. Korean Artist Project With Korean Art Museums

2011년 선정작가	2012년 선정작가	2013년 선정작가
김준(가림미술관), 권기범(금호미술관), 강현욱(당림미술관), 한기창(당림미술관), 박대조(대산미술관), 손봉재(무등현대미술관), 이이남(무등현대미술관), 안창홍(사비나미술관), 김승영(사비나미술관), 김창걸(사비나미술관), 김호득(시암미술관), 정광호(신미술관), 강형구(영문미술관), 고낙범(코리아나미술관), 원(코리아나미술관), 양아치(토탈미술관), 장지아(토탈미술관), 민병현(한미사진미술관), 이갑철(한미사진미술관), 이상현(한미사진미술관), 정연두(헬로우유지움).	남경민(가림미술관), 이길래(남포미술관), 성동훈(대산미술관), 김주연(무등현대미술관), 정복수(사비나미술관), 황인기(사비나미술관), 정보영(스페이스룸미술관), 오형근(아트선재미술관), 강영민(영문미술관), 진시영(우재길미술관), 이용백(토탈미술관), 최정화(토탈미술관), 문형민(코리아나미술관), 이수경(코리아나미술관), 심영철(한국미술관), 고명근(한미사진미술관), 원성원(한미사진미술관), 유현미(한미사진미술관), 진유영(환기미술관), 박선기(헬로우유지움), 이세현(헬로우유지움).	차종례(남포미술관), 조숙진(대산미술관), 배형경(모란미술관), 홍순명(사비나미술관), 양대원(사비나미술관), 박상미(서호미술관), 권정호(시암미술관), 박승순(영문미술관), 신선주(영문미술관), 고상우(자하미술관), 구성수(자하미술관), 리경(코리아나미술관), 김기라(토탈미술관), 노순택(토탈미술관), 김중구(한광미술관), 남다(한미사진미술관), 이정록(한미사진미술관), 최중원(한미사진미술관), 윤애영(환기미술관), 손중준(헬로우유지움), 홍지윤(헬로우유지움).

KAP 선정작가 리스트(63명, 미술관 가나다 순)

IV. 한국현대미술해외진출을 위한 영문 단행본 및 미술사이트

2. Korean Artist Project With Korean Art Museums



KAP 한국어버전 홈페이지 이미지

IV. 한국현대미술해외진출을 위한 영문 단행본 및 미술사이트

2. Korean Artist Project With Korean Art Museums



KAP English버전 홈페이지 이미지

IV. 한국현대미술해외진출을 위한 영문 단행본 및 미술사이트

2. Korean Artist Project With Korean Art Museums

1) Korean Artist Project 개요

- 사업명 : 온라인미술관 구축사업 Korean Artist Project (KAP)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 사업기간 : 2011년 5월 - 2013년 12월
- 웹사이트 : www.koreanartistproject.com

2) Korean Artist Project 콘텐츠 구성

- KAP의 독보적인 콘텐츠, 온라인 가상 전시장 (Virtual Exhibitions)
-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터뷰 영상
- 작가의 최신 정보를 담은 디지털 아카이브

IV. 한국현대미술해외진출을 위한 영문 단행본 및 미술사이트

3. 더아트로(TheArtro)

1) 더아트로(TheArtro) 개요

- 웹사이트: <http://www.theartro.kr/>
- 발행인: 정재철/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 기획·편집·운영: 국제사업부 지식정보팀
- 3기 기획위원: 박남희-기획위원/201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전시감독
주연화-기획위원/아라리오 갤러리 총괄 디렉터
Judith Staines/해외 기획위원/아시아 유럽재단(ASEF) Culture360.org편집장

2) 더아트로(TheArtro) 콘텐츠 구성

- 포커스: 국내외 동시대미술의 동향, 행사, 공간 소개
- 크로스토크: 국내외 시각예술 전문가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전시 크로스 비평
- 하우투: 국내외 미술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생생한 현장 사례와 노하우 공유
- 피플: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미술전문가의 활동내용 인터뷰
- 아트뉴스: 국내외 시각예술 행사 및 공모/ 지원 소식

IV. 한국현대미술해외진출을 위한 영문 단행본 및 미술사이트

3. 더아트로(TheAr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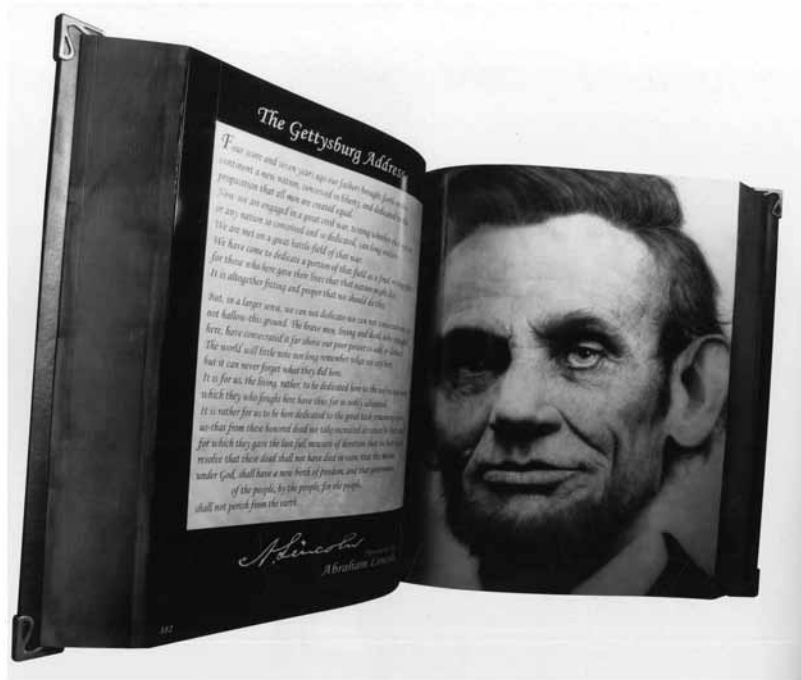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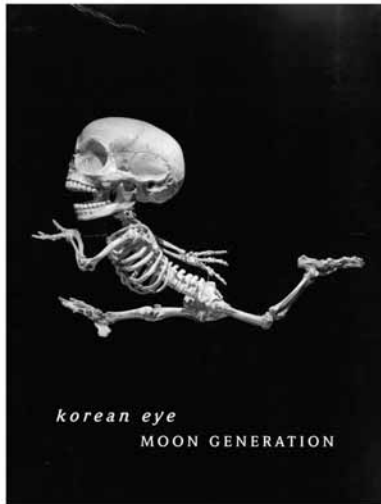
더아트로(TheArtro) English버전 홈페이지 이미지

V. 한국미술 해외진출 분석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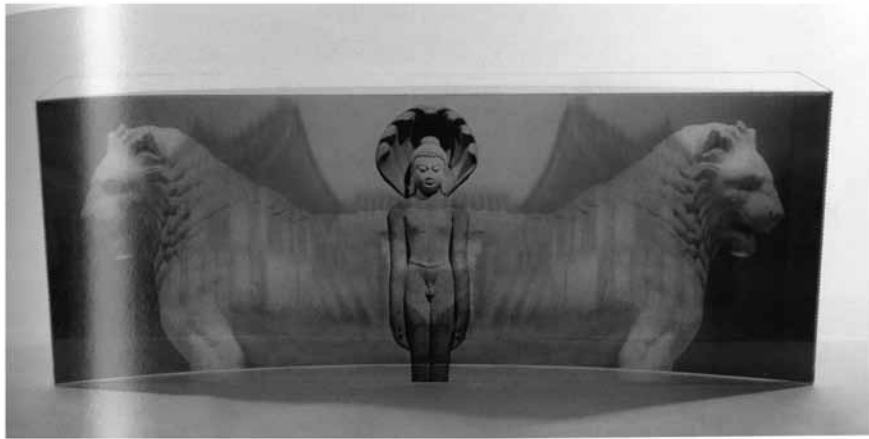
o 2009 - 2012년 코리안 아이

- 2009 - 2012년 코리안 아이는 다국적 전문위원들이 함께한 일종의 글로벌 프로젝트임.

2009 Korean Eye : Moon Generation, 2009.6.20-10.1, 영국 사치갤러리



강형구, Lincoln in the book, 2009



고명근, the one-1, 2009



권기수, time,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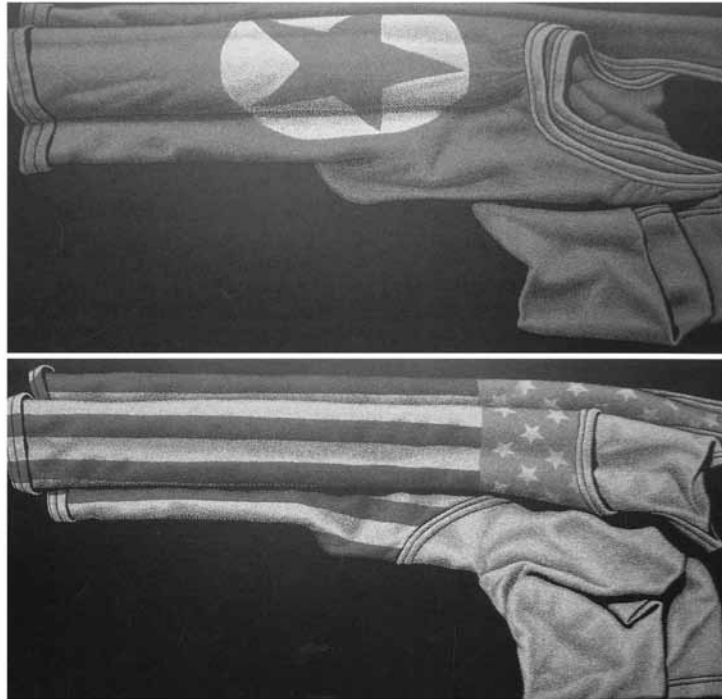
한류의 지금을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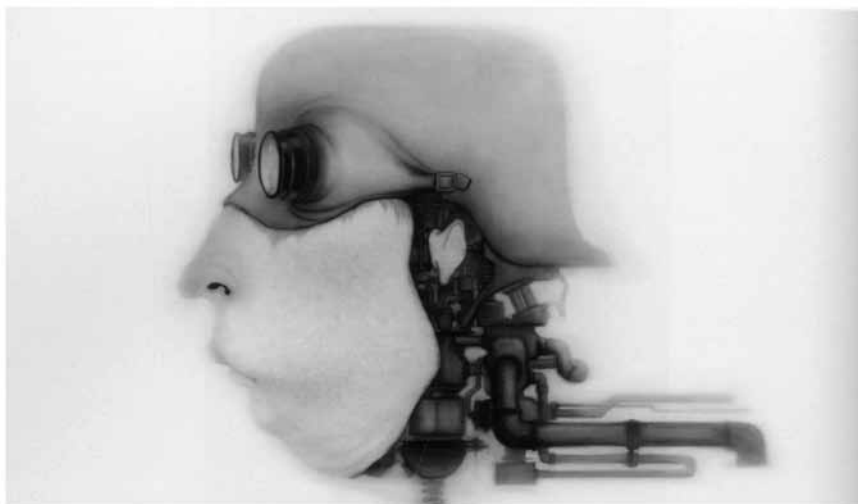
김준, Bird-land Donald duck, 2008



왕인기, Pla Mountain 09-188, 2009



윤종석, Masked Net(pair), 2008



이승민, Conspirator-bystander,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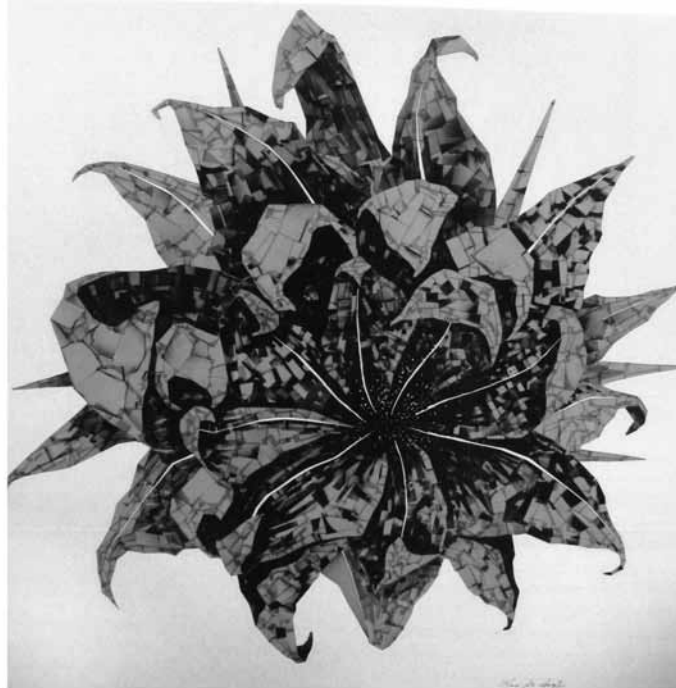
한류의 지금을 보다



이용백, 플라스틱 피쉬, 2008



추종완, Emergence,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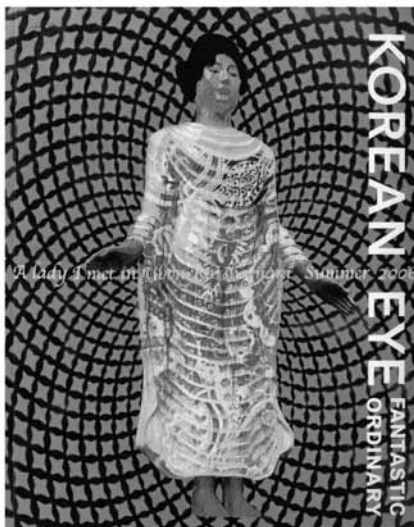
한기창, Hybrid Landscape, 2008

V. 한국미술 해외진출 분석 및 시사점

o 2009 - 2012년 코리안 아이

- 2009 - 2012년 코리안 아이는 다국적 전문위원들이 함께한 일종의 글로벌 프로젝트임.

2010 Korean Eye - Fantastic Ordinary, 2010. 7. 3- 7.18, 영국 사치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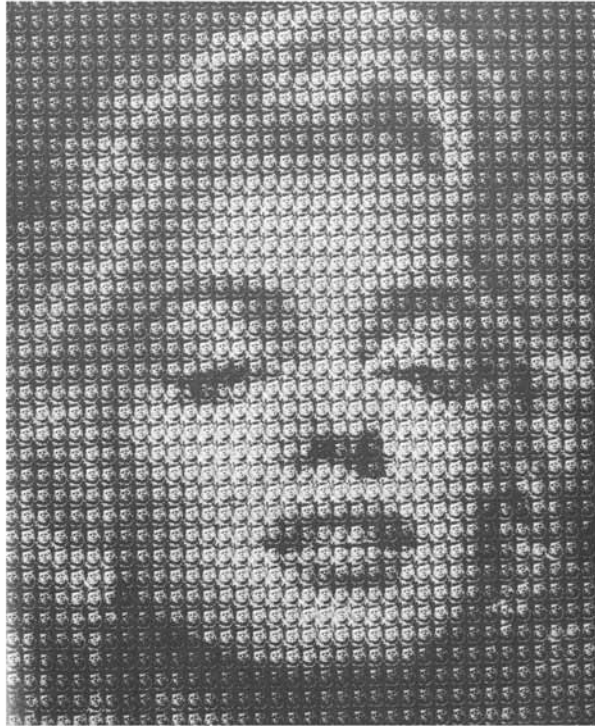
한류의 지금을 보다



권오상, Harpers Bazaar, 2008



김동유, Elizabeth II VS Diana, 2007



김동유, Marilyn Monroe vs Jhon F. Kennedy, 2007



김현수, Breik, 2008



김현수, Sleeping Boy, 2007



박은영, Big Present, 2010



박은영, Brainwash, 2010



신미경, Translation-Bronze Age, 2009

한류의 지금을 보다



신미경, Translation-Ghost series, 2007



홍영인, Evolution of Time-space, 2010

V. 한국미술 해외진출 분석 및 시사점

o 2009 - 2012년 코리안 아이

- 2009 - 2012년 코리안 아이는 다국적 전문위원들이 함께한 일종의 글로벌 프로젝트임.

2011 Korean Eye - Energy and Matter

2011.9.5-9.9, 한국 국회의원 회관 로비

2011.11.1-2012.2.19, 미국 뉴욕 아트디자인박물관

2012.3.18-4.25,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페어몬트 밥 알 바흐르호텔 로비



김준, We-red Devil, 2005

한류의 지금을 보다



데비 한, Sports Venus I, 2008



박승모, Bicycle,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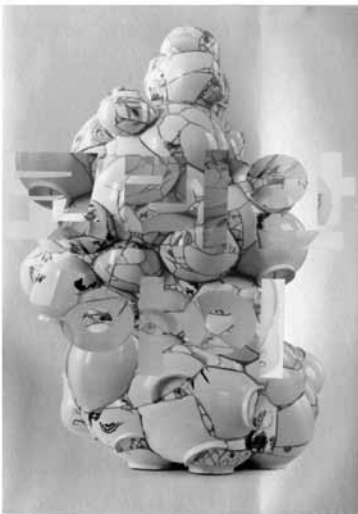
윤종석, Heroes, 2011

V. 한국미술 해외진출 분석 및 시사점

o 2009 - 2012년 코리안 아이

- 2009 - 2012년 코리안 아이는 다국적 전문위원들이 함께한 일종의 글로벌 프로젝트임.

2012 Korean Eye - Energy and Matter, 2012.7.25-09.23, 영국 사치갤러리



한류의 지금을 보다



김현준, Fragile



오정일, Lover



유혜리, Honeymoon Island



이길우, Dancer in Nature

제3차 한류NOW 정기세미나
한류의 지금을 보다

V. 한국미술 해외진출 분석 및 시사점

○ 2009 - 2012년 코리안 아이

- 첫째에만 25만 명의 현재 관객을 이끌어 냈으며, BBC, Financial Times 등이 열광했고, 밀라노의 출판사 SKIRA가 책을 2권이나 냈음.
- 사치갤러리가 런던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현대미술 특별전을 개최하는 성공을 이끌어냄.

PRESS COVERAGE

JoongAngIlBo

"Korean Eye has given Korea a great opportunity to showcase its contemporary art on the international stage."
 Mr Young-Ho Ryu - President of JoongAng Culture

Anyang Kim
 Awarded the JoongAng Fine Arts Prize in 2008

Sneak Peek at Korea's Rising Artists

V. 한국미술 해외진출 분석 및 시사점

2009 - 2012년 코리안 아이

Korean Modern Art Goes to London

« Promouvoir le meilleur de l'art coréen actuel »

"세계적 권력터전에 한국 젊은 작가 알릴 것"

행담김영

The Korea South

The Korea Times

"The exhibition was previewed in Seoul last month and visited by London's mayor, Boris Johnson, who was reportedly impressed."
 - The Daily Telegraph, Tuesday 16th June 20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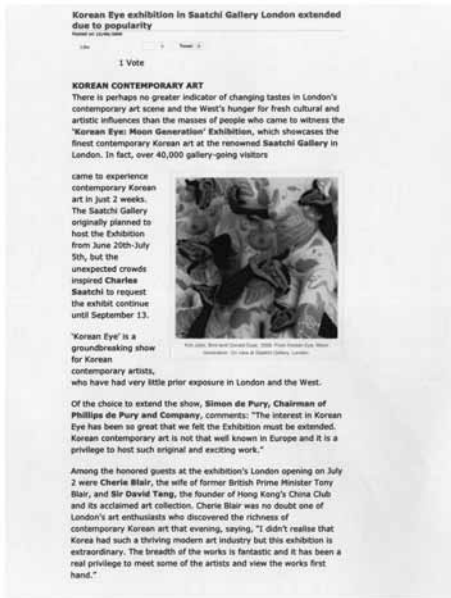
"The works show the diversity and creativity of Korean artists."
 - The Korea Times, 20th May 2009 -

"Some artists offered a new twist on traditional Korean art."
 - The Korea Times, 20th May 2009 -

"As a collector, I see the talent here as probably superior to Chinese or Japanese art."
 - David Cahines, The Korea Times -

V. 한국미술 해외진출 분석 및 시사점

2009 - 2012년 코리안 아이



V. 한국미술 해외진출 분석 및 시사점

- 오늘 날 백남준, 이우환이 한국에 거주했다면 세계미술사에 남는 작가로 성장하지 못했음.
- 백남준에 이어 이우환은 2011년 백남준 이후 한국작가로 두 번째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에서 대형회고전, 내년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개인전을 열게 됨.
- 지금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강익중, 김수자, 김아타, 서도호, 양혜규, 육근병, 이불, 이용백, 전수천, 최정화 등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
- 예술이 국력인 시대, 경제력은 예술의 교류 확대를 크게 뒷받침 함.



[조선일보] 2011.6.25



[조선일보] 2013.11.25

V. 한국미술 해외진출 분석 및 시사점

- 미술작품은 문화유산이고 하나의 상품임. 문화전쟁시대 해외전은 실적위주가 아니라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서 열리는 전시회이므로 무슨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평가받을 것인가라는 문제제기가 따름.
- 동시대를 사는 국제화된 시점에서 이런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하고 실제적인 실행에 임해져야함
- 우리 문화예술의 위상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다양하고 중장기적인 미술문화 정책과 효과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함.

VI. 미술한류에 대한 정책방향

국제적 네트워크의 구축

- 작가, 전문기획자, 다양한 전시 공간 등 전문영역에서의 미술한류가 진행되어 왔으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각각의 개별 주체들이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비단 전시만이 아니라, 학술, 연구, 인적교류, 제반 프로그램 등 다방면의 교류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한국현대미술 확산에서 유연성과 지속성이 높은 소통방식을 형성할 수 있음.

한국의 지역적 뿌리와 세계적 차원의 의제조정

- 한국사회가 처한 문화, 정치적 상황은 자연스럽게 한국미술의 지역성을 형성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우리미술의 지역적 색채와 뿌리는 갖고 가면서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슈와 논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이제는 국가단위의 문화콘텐츠의 한계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국가, 기관 단위의 대규모 교류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삶의 양상을 담아내는 지역간, 개인간의 소규모 교류도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음.

해외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한국현대미술 거점 개발

- 일회성 전시만이 아니라,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 지속적으로 한국현대미술을 소개하고 한국작가들의 작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현대미술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영문 DB화 작업이나 출판물의 발간 등도 이러한 미술한류를 꾸준히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감 사 합 니 다

세션II 한류 장르 집중 탐구

K-Pop 아이돌 가수의 아티스트화 시대의 도래

이솔림

S+ Project 연구소 대표
前 SM아카데미원장

IDOL MAKING PROGRAM

K-POP 아이돌 가수의 아티스트화 시대의 도래

2013.12.10. , LEE SOL LIM

INDEX

1. K-POP 아이돌에 관한 다양한 시각

: 한류의 발전.K-POP 아이돌 인기 .사회적인 이슈화

2. K-POP 아이돌 발굴 및 교육

: Creative System. Training making program. Case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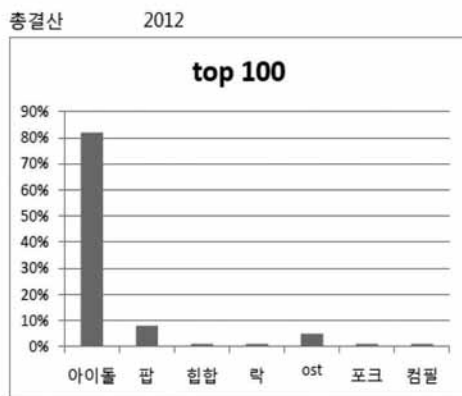
3. 결론

: 분석 및 과제. 시사점 및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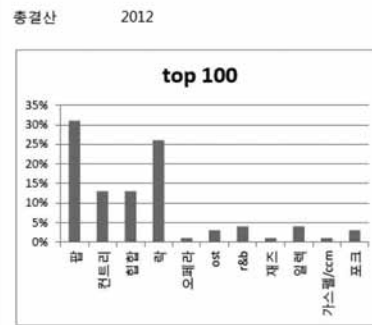
INDEX 1

K-POP 아이돌에 관한 다양한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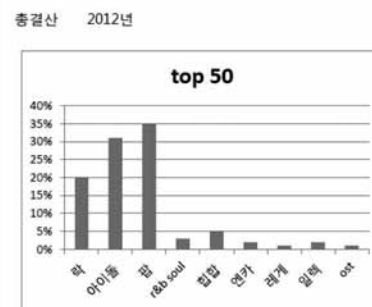
: 한류의 발전.K-POP 아이돌 인기 .사회적인 이슈화



2012년 가온차트 장르 총결산
 201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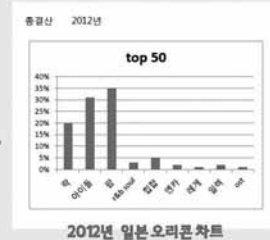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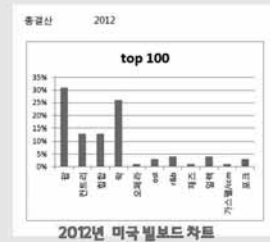


2012년 미국 빌보드 차트



2012년 일본 오리콘 차트

- ✓ 2012년 가온 차트
82%가 아이돌 그룹의 음악
- ✓ K-POP=아이돌 음악
아이돌 음악에만 **편중**
- ✓ 다양성의 **결여**



국내의 대중문화산업이 지나치게 아이돌로 집중되면서 특정장르의 음악만이 미디어 노출을 독점하고 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아이돌의 패션뿐 만 아니라 모든 것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전체가 '획일화' 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회학자들은 아이돌에 열광하는 현상을 한국 사회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10대 사생팬**의 이해할 수 없는 집착과 과잉 행동에 관해 몇몇 교육학자들은 치열한 입시 경쟁 체제에서 밀려난 청소년들이 아이돌에 집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찾고, 상실감을 보상받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이돌에 열광하는 이유가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고통의 일상화, 실업률의 증가, 치열한 입시 경쟁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마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동연, 2011)

한류의 지금을 보다

연예기획사들의 획일화된 스타양성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아이돌 가수들이 가요계의 **다양성을 해치고 쓸림현상**을 나타나게 하면서 영향력이 확대되어 결국 한국 사회 내 또 다른 권력집단 및 지배층의 탄생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아이돌에 대한 **우상화**에 빠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주수용층인 어린 청소년들이 접하기에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라는 비난 역시 끊임없이 논란거리로 거론되고 있다. (김진아, 2010)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그 중 상당수는 어린 청소년이다. 연예인을 꿈꾸는 10대가 어찌나 많은지 유명 기획사의 연습생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이돌 고시'**라 불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아이돌 붐은 새로운 콘텐츠 창출과 한류의 선봉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소위 아이돌 고시라는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7-10년의 혹독한 과정을 겪게 되는데, 어린 나이에 거쳐야 할 성장과정을 생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 또한 **아이돌의 인권 보호** 등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이슬림, 2011)

INDEX 2

K-POP 아이돌 발굴 및 교육

: Creative System. Training making program. Case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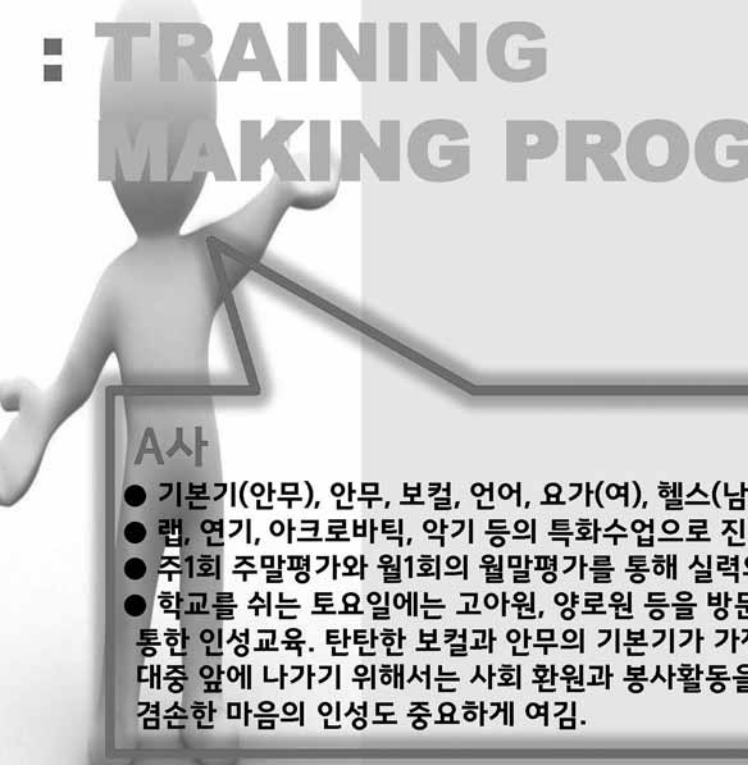
CREATIVE SYSTEM





: TRAINING MAKING PROGRAM

- ✓안무, 보컬, 연기, 언어 등
- ✓ '멘투맨' 형식으로 맞춤형 트레이닝
- ✓수업은 분야별로 세분화



: TRAINING MAKING PROGRAM

A사

- 기본기(안무), 안무, 보컬, 언어, 요가(여), 헬스(남), 기본수업과
- 랩, 연기, 아크로바틱, 악기 등의 특화수업으로 진행
- 주1회 주말평가와 월1회의 월말평가를 통해 실력의 향상도 체크
- 학교를 쉬는 토요일에는 고아원,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탄탄한 보컬과 안무의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지만 대중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환원과 봉사활동을 통한 겸손한 마음의 인성도 중요하게 여김.

TRAINING MAKING PROGRAM

B사

- 기본적으로 보컬, 댄스 수업이 '클래스' 단위가 아닌 '팀' 혹은 '개인' 단위로 이루어짐. 이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에 따라 과정이 세분화.
-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언어 수업을 진행.
- 퍼스널 트레이너 분들이 매일 건강 관리.
- 담당 트레이너와 정기적인 멘탈 케어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격 형성.
- 매일 보컬레슨이 있으며, 주3회 댄스레슨과 일본어, 2회 가량 언어 레슨 및 요가 혹은 멘탈 케어 등
-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월 단위, 주 단위, 혹은 일단위로 모니터링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며, 6시간 이상의 기본 커리큘럼
- 가수라면 댄스와 보컬 부분이 가장 중시 되겠지만, '인성', 그 가운데에서도 기본이 되는 '인사'를 가장 중요시함.

TRAINING MAKING PROGRAM

C사

- 1주일 커리큘럼은 보컬, 안무, 연기, 악기, 외국어, 독서, 운동 등을 기본교육으로 진행
- 2주에 걸친 1곡 완성, 음악 노트 주4곡 이상 감상 및 분석, 안무와 연기, 악기는 개별연습 및 레슨으로 진행.
- 외국어는 기본단어 주80개 이상 외우기를 통해 테스트형식으로 진행.
- 주 1권 읽고 감상문 작성 후 발표하는 독서도 중요하게 체크.
- 비주얼 등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운동 및 다이어트도 꾸준히 관리.
- 트레이닝 과정 중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가수로서 제일 기본 및 바탕이 되는 부분이므로 보컬은 가장 중요시 여기지만 거짓말 하지 않기, 성실도, 약속(시간, 과제) 등의 인성 교육 체크도 중요한 사항으로 진행.

☐ CASE STUDY

✓ SM 아카데미



보통과 3기 최정원(이은비) 박영민 보통과 4기 소녀시대 김태연 보통과 4기 조미남 허가을 보통과 5기 태훈 김재욱 보통과 5기 NISSAD 지요 보통과 7기 샤우-김(후비)은유 보통과 9기 레인보우 조현정



보통과 10기 유수정 보통과 14기 김민지 보통과 After School 세아나 연가과 15기 고경표 연가과 16기 INFINITE 이상범 보통과 EXO-K 카이 보통과 17기 박유빈

**GLOBAL
PROJECT
PROGRAM**



INDEX 3

결론

: 분석 및 과제. 시사점 및 정책방향

✓ 아이돌 그룹데뷔현황

데뷔	팀 수	그룹명
1996	7	에이치오티/영 텍스 클럽/엔타이름/유평/아이돌/구피/자자
1997	7	태사자/엔알지/에스이에스/베이비 보스/디바/잭스 키스/지누션
1998	10	코요태/삼/원타임/한스 밴드/서클/비쥬/핑클/신화/이글파이브/팬클럽
1999	8	플라이 투 더 스카이/애즈 원/클릭비/씨유/클레오/티티마/오투포/지오디
2000	6	투아/파파야/티니/문차일드/샤크라/랑현량하
2001	10	제이티엘/밀크/키스/보이스코/에스/케이팝/걸프렌드/디베이스/데이지/쥬얼리
2002	8	데자부/파이브/이삭N자연/러브/스위티/신비/블랙 비트/슈가
2003	1	동방신기
2004	5	하트/트랙스/버즈/샤인/SG워너비
2005	9	슈퍼주니어/가비 엔제이/아이써틴/파란/레드 삭스/퍼퓸/엘피지/더블에스오공일/천상지희 더 그레이스
2006	6	배틀/빅뱅/타이퐁/씨야/브라운 아이드 걸스/키로츠
2007	8	초신성/소녀시대/F.T. 아일랜드/카라/원더걸스/베이비 보스 리브/블랙 펠/씨니힐
2008	7	유키스/스매쉬/에이스타일/사이니/투에이엠/투피엠/다비치
2009	13	레인보우/시크릿/제이큐티/헵/슈아이/엠블랙/비스트/에프엑스/티아라/포미닛/ 투애니원/점퍼/애프터스쿨
2010	19	지피베이지/브이엔티/베베미농/터치/남녀공학/디엠티엔/나인뮤지스/걸스데이/틴탑/레드애플/미스에이/인피니트/ 씨스타/대국남아/씨엔블루/포커즈/제국의아이들/에스엠 더 발라드/에이피스
2011	30	뉴에프오/씨리얼/더블에이/마이네임/에이프릴키스/비비보이즈 /스텔라/쇼콜라/블레이디/비오엠/ 허트/스윙클/엔트레인/보이프렌드/스피널/비원에이포/X-5/에이핑크/블락비/브레이브걸스/라니아/ 처치/벨라/코인젝스/피가들스/달샤벳/보이즈/클리나/엠아이비/비비안
2012	36	카오스/픽스/어엑스아이디/스피카/비에이피/엑소오/뉴이스트/비투비/헬로비너스/제이제이 프로젝트/빅스/에이젝스/ 쟁키즈/레이티/글램/쉬즈/씨클라운/빅스타/에이오에이/디유닛/테이스티/이블/투엑스/스카프/씨니데이즈/타이니지/ 피엑스타/엔이퍼/투포케이/가디스/퓨리티/비비드걸/백퍼센트/크레용팝/오프로드/미스터미스터

*주: 위키백과(2013)의 자료를 근거로 필자가 재구성함. 슬로가수 제외

ANALYSIS

- K-POP 아이돌 그룹 데뷔 현황
- 사회성 저하
- 기획사의 횡포
- K-POP의 특정 장르 편중



: CONCLUSION

- 데뷔 전후의 인권보호
- 아이돌의 아티스트화 교육
- 미래에 대한 보장
- K-Education의 장르 개척 및 교육 기관 설립



S⁺ PLUS PROJECT

THANK
YOU

세션 II 한류 장르 집중 탐구

한국영화 리메이크와 영화 한류

박희성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조사팀장



한류의 지금을 보다

1. 한국영화 리메이크 판권 수출과 제작

영화 리메이크 판권

영화 리메이크 판권?

- ◆ 영화의 아이디어, 컨셉을 가져와 새로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권리

왜 리메이크 판권을 구입?

- ◆ 영화의 아이디어나 컨셉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
 - *300-500만 달러 : 30-100만 달러
- ◆ 현지에서 성공하여 상업성이 입증된 작품이 구입대상
- ◆ 원작 수입 <상영 수입> <리메이크작 상영 수입>
 - *일본 <링> : 미국 <링> 2억5천만 달러
 - 홍콩 <무간도> : 미국 <디파티드> 2억9천만 달러



1. 한국영화 리메이크 판권 수출과 제작

한국영화 리메이크 판권 수출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 시작

유럽 지역

- ◆ <접속> : 1998년 독일에 수출
<여인2가 해피엔드를 찾다 Frau2 sucht Happyend>
라는 제목으로 2001년 독일에서 개봉



1. 한국영화 리메이크 판권 수출과 제작

한국영화 리메이크 판권 수출

아시아 지역

◆ 일본

- <조용한 가족>('98) -> <가타쿠리家の 행복>('02)
- <8월의 크리스마스>('98) -> <8월의 크리스마스>('05)
- <동감>('00) -> <시간의 향기>('01)

◆ 태국

- <편지>('97) -> <더 레터>('04)



KOFIC

1. 한국영화 리메이크 판권 수출과 제작

한국영화 리메이크 판권 수출

미주 지역

- ◆ 총 30편 내외 : 1999년 <텔미섬딩> ~ 2013년 <신세계>
- <시월애>('00) -> <레이크 하우스>('06)
- <엽기적인 그녀>('01) -> <마이 세시 걸>('08)
- <올드 보이>('03) -> <올드 보이>('13)



KOFIC

1. 한국영화 리메이크 판권 수출과 제작

한국영화 리메이크 제작 및 개봉 현황

영화명 (연도, 감독)	국가	판권 금액	리메이크 영화명 (현지 개봉 시기)	현지 개봉 결과	한국 개봉명 (개봉일) 관객 수
301, 302 (1995, 박철수)	미국	N/A	Compulsion(2013)	N/A	<섹슈얼 컴펄전> (2013.06.13) 1,563
접속 (1998, 장윤현)	독일	5만 마르크 (약 3,600만 원)	Frau2 sucht HappyEnd(2001)	N/A	미개봉
조용한 가족 (1998, 김지운)	일본	1천만 원	The Happiness of the Katakuris(2002)	N/A	미개봉
8월의 크리스마스 (1998, 허진호)	일본	N/A	Christmas in August(2005.9)	N/A	<8월의 크리스마스> (2007.3.8) 57
편지 (1999, 이정국)	태국	N/A	The Letter(2004)	박스오피스 1위	<더 레터> (2006.08.10) 29
동감 (2000, 김정권)	일본	N/A	Toki No Kaori: Remember Me(2001)	N/A	미개봉
시월애 (2000, 이현승)	미국	50만 USD	Lake House(2006)	전 세계 1억 1,483만 USD 수입	<레이크 하우스> (2006.08.31) 133,961
엽기적인 그녀 (2001, 광재용)	미국	75만 USD (복미 배급권 포함)	My Sassy Girl(2008)	극장 개봉 없이 비디오 출시	<마이 세시 걸> (2008.10.30) 10,448
중독 (2002, 박영훈)	미국	25만 USD	Possession(2008)	극장 개봉 없이 비디오 출시	미개봉
거울 속으로 (2003, 김성호)	미국	N/A	Mirrors(2008)	전 세계 7,749만 USD 수입	<미러> (2008.09.18) 193,815
장화, 홍련 (2003, 김지운)	미국	200만 USD *구매 계약 (옵션 계약 아님)	The Uninvited(2009)	복미 2,860만 USD 수입	<안나와 알렉스: 두자매 이야기> (2009.04.09) 48,069
올드 보이 (2003, 박찬욱)	미국	N/A	Old Boy(2013)	11월 미국 개봉	

KOFIC

2. 한국영화 리메이크 판권 수출 결과

리메이크 판권 수출에 대한 기대

한국영화 브랜드 알리기에 도움

상영권리 판매보다 더 많은 수익

글로벌한 작품으로 재탄생

리메이크 판권 수출에 대한 평가

저조한 리메이크작 완성을

리메이크작의 미흡한 수준

한국 측에 실질적인 수익 없음

- 판권 가격 낮고 완성에 따른 수익 미흡
- 리메이크 과정에 관여할 수 없음

KOFIC

3. 한국영화 리메이크의 새로운 형태

◆ 중국이 한국영화에 필요로 하는 것

중국영화시장의 성장과 다양한 컨셉의 필요성

- ◆ 2000년대 중반부터 30-50% 성장률 → 2012년 전세계 B.O. 2위
- ◆ 2000년대를 주도해 온 대작영화 : <영웅> <연인> <집결호> <양자탄비> <대지진>
- ◆ 2010년대부터 장르영화, 중저예산영화의 가능성 폭발

한국영화의 창작성과 노하우에 대한 수요

- ◆ 한국영화에 대한 높은 평가 → 한국 인력과 컨셉에 대한 수요 증가
- ◆ 배우, 촬영, 편집, 사운드, 특수효과, 특수분장, VFX와 더불어 감독 진출
- ◆ 허진호 감독 <호우시절>('09), 오기환, 안병기 감독 등

KO FIC

3. 한국영화 리메이크의 새로운 형태

◆ 한국영화 감독에 의한 한국영화 리메이크

중국에서 한국감독이 만드는 영화

- ◆ 대부분 한국영화 리메이크
- ◆ 컨셉, 줄거리 + **한국감독** + α (한국스텝)

사례

- ◆ 이재용 <스캔들> → 허진호 <위험한 관계>
- ◆ 오기환 <선물> → <이별계약>
- ◆ 안병기 <분신사바> → <필선>
- ◆ 안병기 <가위> → <필선2>

결과

- ◆ <위험한 관계> 칸영화제 상영
- ◆ <이별계약> 2억 위안 B.O.
- ◆ <필선> 6천만 위안 B.O.
- ◆ <필선2> 8천만 위안 B.O.

KO FIC

3. 한국영화 리메이크의 새로운 형태

한국영화 감독에 의한 한국영화 리메이크

Case 1

- 잔잔한 최루성 멜로물 수요 겨냥
- 내용이 지나치게 어둡다는 평가
-주인공이 불치의 병으로 죽는 설정 외엔 모두 변경
- 정통멜로 → 로맨틱코미디 + 멜로
- 중국 시나리오 작가 (중국적인 문화와 상황) + 한국 감독 (장르 이해력, 연출력)
→ 원작의 감수성을 살린 새로운 영화로 중국인에게 어필

선물



이별계약 分手合约



KOFIC

3. 한국영화 리메이크의 새로운 형태

한국영화 감독에 의한 한국영화 리메이크

Case 2

- <분신사바>의 중국어 제목인 '笔仙'을 빌어왔을 뿐, <분신사바>의 내용과 무관
- 연출을 안병기 감독이 맡게 되면서 마케팅 목적으로 제목만 빌린 경우
- 감독의 호러장르에 대한 연출력과 노하우, <분신사바>의 명성이 영화의 흥행에 기여
- 촬영, 조명, 음악, 편집, VFX 등에 한국 스태프가 참여하여 완성도를 높임

분신사바



필선 笔仙



KOFIC

3. 한국영화 리메이크의 새로운 형태

한국영화 감독에 의한 한국영화 리메이크

Case 3

- 원작 <가위>의 줄거리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 원작 감독이 만든 리메이크작
- 일부 설정과 장면 표현에 있어 중국의 정서와 현실, 중국의 검열제도 등을 반영하여 변경
- 현지화에 충실하면서도 원작의 느낌을 잘 살려내 중국 호러영화 역대 최고 흥행기록 수립

가위

필선2 笔仙2



KOFIC

4. 한국영화 리메이크와 영화 한류

단순 리메이크판권 수출 → 공동제작 개념의 리메이크 확대

<레이크 하우스>

- ◆ 50만 달러의 리메이크 판권 수입
- ◆ 1억500만 달러의 상영 수입

공동제작
기획, 감독, 배우 등

<이별계약>

- ◆ 기획, 메인투자 및 감독, 촬영, 의상, 조명 참여
- ◆ 수익
 - + 중국의 영화 제작시스템, 시장과 관객 실전지식
 - + 한국영화 인력, 창작력 가치 제고

할리우드 중심 → 아시아 지역에서 현지화 전략으로 확대

할리우드

- ◆ 싼값에 아이디어 수입하여 수익 창출 목적
- ◆ 제작 지연 및 제작 포기 多

아시아 지역

- ◆ 한국영화에 대한 선호에 기반
- ◆ 한국영화의 정서와 문화 존중
- ◆ 공동제작을 통한 공동발전, 공동시장 창출 가능

KOFIC

4. 한국영화 리메이크와 영화 한류

◆ 리메이크에 임하는 적극적인 자세

◆ 언어권 공략 : 영어권, 중국어권

◆ 리메이크 가능작 발굴 적극적 소개 및 리메이크 방식 개발

◆ 체인 오브 타이틀 등 산업 내부 관행 정비

◆ 리메이크와 한류

◆ 한국영화 리메이크 = 영화 한류 확대의 '매개자'

◆ 한국영화 단순 소개 => 한국영화 현지화 + 현지 시장과 공동발전

KOFIC

감사합니다!

KOFIC